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金)

五國海軍軍縮會議 十二月二日開催
英政府, 日米佛伊大使通하야 正式으로 招請狀發送

【倫敦二十四日發電通至急報】英國政府公表＝政府는 五國海軍軍縮會議를 來十二月二日에 開催키로 決定하고 二十四日午前 日米佛伊各國大使를 通하야 正式招請狀을 發送하엿다

【倫敦卄四日發電通】二十四日午後開會된 英國下院本會議에서 몬셀海相은 軍縮本會議에 對하야 左와如히 强調하얏다
政府는日本、米國、佛國、伊太利에 對하야 來十二月二日 軍縮本會議를 開催할 旨의 正式招請狀을 發送하얏다 會議의 目的은 一九三六年末로써 無效가될 華盛頓、倫敦兩條約에 代할條約을 締結할것을 目的으로한 軍縮協定을 定함에잇다 政府는 右會議後會議의 範圍를擴大하야 他海軍國도 包含케할 希望을가지고잇다

英外務當局發表

【倫敦二十四日發聯合】英國外務省當局은 二十四日午後 新聞記者團에 對하야 海軍縮少會議招請決定을 半官的으로 發表하야 左의 方針을 宣明하엿다
一、英國政府는 華盛頓 倫敦兩海軍條約에 基하야 十二月二日 倫敦에 海軍縮少本會議를 招請함
一、本會議에잇서서는 特히 質的制裁案及 自主的建艦報告案을 討議하게될것이다
一、本會議에는 倫敦條約締約各國政府를 招請하되 各自治領政府에서는 倫敦駐箚高等辯務官이 代表로 參加할터이다 그리고 米佛伊三個國代表로 倫敦駐箚大使가 任命되리라고 觀測되다

軍縮本會議招請을 米正式受諾發表

【華盛頓二十四日發聯合】米國政府는 二十四日海軍縮少本會議에 關한英國政府의招請을 正式으로 受諾하고 헐國務長官은 二十四日附 正式受諾을 發表하엿는데 會議에臨할 方針에對하야는 何等發表치안코 代表團의人物도 言及을 避하엿다 그實施에 邁進하기로되어잇다

討議具體案
招請狀에 提示는 絕對反對方針
白紙狀態로開始함이適當 廣田外相英國에通達

【東京電話電通】軍縮會議의 正式招請狀은 駐日英國大使크라이브氏 或은 藤井駐英代理大使를 通하야 今週中에 通達되리라고豫想되는데 英國政府는 同招請狀中에 討議의 具體案을 提示하여오리라고 豫想되므로 廣田外相은 大角海相과 妥協한結果 二十四日午後 藤井駐英代理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日本의主張은 屢次說明한바와가티 總합 이엇고 英國이提示한 待期建艦案과 如한것을 議題로하는 것은 反對한다 本會議는 白紙狀態로서 開始함이 適當하다고 생각한다는旨를 英國政府에 通達케한 模樣이다 따라 英國政府는 正式招請狀에는 議題를 明示하지 안흐리라고 豫想되는데 招請狀中에 從來의 交涉經緯를 說明하야 暗暗히 討議의 基礎方針을 示唆하는것도 考慮함으로 如斯한 境遇에는 日本側의 正式回答中에 反對意向을 明示하야 英國政府의 主張에 應함을 豫防할方針이다

正式招請狀 日本大使館서受理

【倫敦二十四日發聯合】英國政府는 倫敦華盛頓兩海軍條約에 基하야 來十二月二日브터 倫敦에 海軍軍縮本會議를 招集하기로 決定하고 正式 招請狀은 二十四日午後 日本大使館에 通達되엿다 同時에 米佛伊三國大使館도 各各正式招請狀을受理하얏다

各國各樣의對立으로
會議前途悲觀
海外兩省緊張한準備를進行

【東京電話聯合】英國政府의軍縮會議招請에對하야 日本政府에서는 條約規定에依한 會議인以上 參加할方針으로 日本態度와 代表部構成及人選에 對하여도 海軍外務兩省間에서 愼重히基礎準備를進行하고잇는데 米國海軍長官스완손氏는 五、五、三比率放棄反對를 宣言하고 또英國의볼드윈首相은 軍備擴充必要를力說하며 佛伊도 各其軍備擴張을主張하고잇는現勢를 考察하면 이와가티 悲劇할만한對立狀態로 會議를開催하는以上 英國은 從來의 軍縮提案即 建艦宣言 質的制限以外에는 一九三七年으로부터 無條約狀態에入할 危險性을 最少限度로 防止할 新提案이 업슬것갓고 또日本側이 會議에自進參加하게되든것은 日本의不動한 鐵則에 어느程度까지의 修正及 再考할餘地가잇는 論左라는 印象을 列强에 與할것을 考慮하고 日本代表部의 人選에도 相當한 大人物을 任命하고 또飜譯者數次對英覺書로 充分說明하여 두엇는바 英國政府에서 正式招請이 잇스면 右에對하야 誤解가업도록 거듭英國政府에 不脅威不侵略의 徹底的軍縮方針을 示達하는 것이必要條件이라고 意見이 有力하게 되여잇다 따라 英國政府가 正式 招請狀에 잇서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아직不明하나 如何든 右見解를 軍縮會議招請狀에 關한 對英回答의 主旨에 示現될것은 必然之勢로 어데까지 不動의 鐵則에 依하

米受諾通告同時 代表團構成着手
全權에스탄드레提督

【華盛頓二十四日發電通】米國國務省에서는 二十四日 軍縮會議招請受諾通告와同時에 即時 代表團의構成에着手하엿다 그氏名은 아직發表치안흐나 노만데비스氏는 今回에 出馬할 意向이 稀薄하야 代表로부터 除外되리라고 豫想되며 其代身 終始一貫 忠實한 大海軍論者인 스탄들레提督이 全權代表가되리라고 期待되다 그리고 其以外의 代表는 外交官中에서 選擇하야 議會方面과連絡을 取케하는等 자못事務的人物을 任命할模樣이다

和協氣運의濃厚로 制裁發動또延期乎
伊首相의要望으로五人委員會를復活 和協工作還元될形勢

【주네브二十四日發聯合】英佛伊三國政府의 和協工作은 當局의積極的 否定이잇슴에도 不拘하고 자못進捗되여잇는 模樣인데 伊太利政府에對한 制裁案發動은더욱 延期되리라고 보게되엿다 聯盟事務局側은 二十四日 和協工作의 經緯에對하야 次의意向을 漏洩하엿다
一、에디오피아政府에對한 伊太利의 軍事行動은 無制限으로 繼續할수업는 實情에서 뭇솔리니首相은 和協工作에 進出하리라고 解釋된다
一、特히 制限案發動阻止에 躍起된模樣으로 라발首相도 亦是以上의 情勢를 察知하고和協工作이 이미 具體化되여잇스면 制裁案發動은 延期할것을 提議할것이다
一、라발首相은 뭇솔리니首相의 要望에 基하야 五人委員會를復活할 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五人委員會는 伊太利政府에對하야 支配的 經濟的權益을附與하는 具體案을 提示하야和協工作은 再次 原案으로 還元될 形勢이다(寫眞은伊首相)

五人委員會案의 紛爭解決에同意
伊首相, 對案을英大使에手交
佛紙報道伊對案內容

【巴里二十四日發聯合】뭇솔리니首相의 最後的要請으로 二十四日 에디오피아帝國管理에 關한 對案을 提示하엿는데 라발首相은 二十四日午前 英國大使클락氏에게 右對案을 移牒하엿다고 傳한다 파리잘紙는 二十四日紙上에 뭇솔리니首相의 對案內容을 報道하고잇는데 同紙의 報道에依하면 對案全文은 次와如하다
一、에디오피아國은 歷史的으로 보아 統一된國家가아니라 아디스아베바東方의 領域은 메네리二世의 征服에依하야 併呑된 領域으로 文運이 멀리 뒤떠러저 잇다 此等領域에對하여는 伊太利政府가 管理를 加하드라도 에디오피아帝國의 合法的主權은 조곰도 毁損될 念慮는 업다 따라 此等領域에對하여는 中國의一部에 現存하여잇는것과 가튼租界制度를 設定하야 右領域에 一定한 伊太利軍을 派遣할것을 提言한다 但 伊太利軍은 專혀 治安警察의 任務에當하기로하고 또 에디오피아國內에 駐屯하는 兵力은一定한 數에 限定함
一、에디오피아皇帝는 祖宗으로부터 傳承한 領域에 對하야 依然 主權을 維持함 右領域에 잇서서는 皇帝는 外國顧問團의 援助에 依하야 統治함을得하되 顧問團의協力을 求하고 안하는것은 皇帝의自由裁量에依하야 決定함
一、하랄州가 本部에屬하는지 또는併合에 依한 領域으로 解釋할것인지는 今後의 折衝에依하야 決定하기로함
一、에디오피아本部에서는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人의武裝解除를 要請하야 正規軍의駐屯을 容認하나 正規軍以外의 에디오피아人에對하여는 武器의携行을 禁止함
一、其他五人委員會의報告書案을 受諾하고 聯盟理事會를 通하야紛爭을解決함에 同意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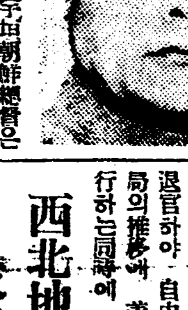
政治的工作으로 休戰狀態繼續
戰況全然落着된狀態

【아스마라二十四日發聯合】아디그라트、악숨의 戰線을 獲得한伊太利軍은 爾來거의 行動을停止하고 空軍部隊가 겨우 戰線을 偵察하는以外 戰況은 全然落着되는 狀態에 陷하얏다 伊太利軍이 如斯히 軍事行動을停止하고잇는것은 政治的工作에基한것이 틀림업는일인바 前線에서도 戰時氣分은 漸次解消되는形勢이다
神經이銳敏한 新聞記者는 十二月에는 戰爭도休戰되다는 豫想을네리워 에리트리아撤退를 開始하얏다는데 一方伊太利當局에서도政治的工作이 顯著히 進捗되야 占領地區以外에서도 代表團이繼續司令部에와서 歸順을 申請하고잇슴으로 軍事的行動의必要가업다고하고잇다

리트비노프氏歸國

【莫斯科二十三日發聯合】聯盟制裁調整委員會에 出席키 爲하야 주네브에赴하엿든 外務人民委員長리트비노프氏는 二十三日 莫斯科에歸還하엿다

宇垣總督渡東을 政界各方面注視
微妙한政界動向과關聯



【東京電話聯合】宇垣朝鮮總督은 二十六日 京城發 二十九日東京着 二週間滯東할 豫定인데 過般朝鮮의 文化産業視察을 爲하야 侍從을 御差遣하압신 御禮言上하고 또中央首腦와도 協議할터인데 宇垣總督은 相當한治績을 擧하엿고 宇垣系中에는 施政二十五周年記念式終了를 機會로 退官하야 自由의立場에서서 政局의推移에 善處할것이라는 論이 行하는同時에 政局은 微妙한 動向을 繼續하고잇는터임으로 總督이來東하면 又復總督을 中心으로한 여러가지運動이 演出되야 宇垣總督을 訪問하는사람도만흘터로 政界各方面에서는 同氏의 東上을 注目하고잇다

西北地方冷害防止로 最初의對策會議

西北朝鮮의冷害及高地帶作物對策打合會는 二十五日午前九時로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宇垣總督臨席 矢島農林局長 統裁下에 開催되엿다 江原、平南、平北、黃海、咸南、咸北、各道農務課長、農務、産業兩課技師、總督府에서 山澤農産、景山農政、鈴川林政、雉井土地改良 各課長以下關係課技師、湯川農事、鎬木林業兩試驗場長、西鮮、北鮮兩支場長等 三十餘名出席 此種會議는 今回가 最初임으로 滿場緊張裡에 먼저 矢島農林局長으로부터 訓示가잇슨後 本府諮問事項
一、昭和六年以降冷害狀況
二、從來道에서 미리 採用한 冷害防止對策及 冷害地善後策과 그成績(但冷害後에 생긴 救濟事業의 成績은 此를 省略함)
三、冷害防止上 急施를 要한다고 認定하는 具體的方策
에 對하야 諮問協議에 드러가얏다 會議는 今後四日間에 亘하야 續行되는대 總督府는 同會議에 잇서서의 狀況報告와 意見聽取를 한다음 이에 基하야 朝鮮最初의 西北鮮의 冷害對策의 根本方針을 決定하고 明年度에는 各地方에 依한 對策具體案을 樹立하야 總督府關係豫算으로는 十二年度에 計上하고서 更히 具體的協議를 할豫定이다

宇垣總督渡東

宇垣總督은夫人同伴으로二十六日午後三時『노조미』號로 京城驛發途中釜山에一泊後 渡東키로되엿다 京城에서는 矢野秘書官, 戶之內副官이隨行, 鹽田事務官은卄七日京城發釜山에서隨行할터이다

香河事件의影響 河北省各地波及
數日間의形勢重大視

【北平二十五日發電通】香河事件이 北中全局面에 與한影響은極히 甚大하야 三河、昌平、寶坻의 停戰地域近接三縣에도 不穩한 空氣가잇서서 縣當局및 省政府에서는 嚴重警戒에 當하고極力波及阻止에 努力하고잇는데一方河北省南端의 大名府및 邯鄲縣等에도 地租輕減要求를 口實로한 民衆自治運動勃發의 氣運이 잇서 一步를그르치면 河北全省은 벌동이될것가튼 事態에急變할는지도 모름으로 玆二三日間의 形勢는 자못 重大視되다

冀縣에도自治宣布

【天津二十五日發聯合】農民自治運動은 破竹의勢로 南部河北省을 席捲하야 冀縣에서는保衛團總隊長 董德昌氏가 二十四日部下五百名을 引率하야 縣城을占하고 自治를 宣布하얏다

農民自治運動 河南省에飛火

【天津二十五日發聯合】農民自治運動은 河北省內各地에 波及하야 南部大名에도 自治運動이擡頭하야 河南省에도 飛火하야 省北部武安에서도 自治運動이 이러낫다

宋哲元氏中心의 新政權出現乎
北中政情急轉回形勢

【北平二十五日發電通】香河事件에 關聯하야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商震責任者인 關係上萬一그對策을 그르치면 곳進退問題에影響하야 主席을 辭任하고責任을 負하게될터인데 商震氏와 對立的地位에잇는 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는 자못有利한 地步를占하고 形勢의 推移를觀望하고잇다 本事件이 더욱 省內各縣에 波及되여 商震氏가引率한第三十二軍의 實力으로는 如何히 當할수업는 事態에 直面하게되면 宋哲元氏는 平津防衛의 責務上自衛軍으로하여금 全部隊를 集中하야 餘地가업게될것이다 그리하야 宋哲元氏의 勢力은 一層擴大强化되게되엿다 即 香河事件과 類似한 民衆運動이 今後繼續勃發되게되면 宋哲元氏를 中心으로한 臨時北中政權이 何等의 形式에 依하야 樹立되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或은 宋哲元氏一派는 이機會를 利用하야 疾風迅雷的으로 新政權을 樹立하리라는說도 잇는바 晩秋北中의天地는 重大한 一段階에 直面한 感이잇다

民衆蜂起
逐山東省內에波及

【北平二十四日發聯合】河北省南部大名附近에 約六、七千名의民衆自治運動이 蜂起하야 北方冀縣及 東方山東省內에는 紅槍會二、三千이 自治軍과合流된形勢를 示現하고잇다고하야 韓復榘氏麾下의 第百十九師는 同方面으로 移動을 開始하엿다고傳한다

人事・集會

▲朴瓚熙氏(東亞日報社地方部長) 四日忠北鎭川邑自宅에서遭外艱
▲高井健次氏(朝鮮精米劑株式會社社長) 會社創立人事次來社
▲古賀義一氏(朝鮮精米劑株式會社取締役) 同上
▲渡邊彌三一氏(朝鮮精米劑株式會社專務取締役) 同上
▲李源淳氏(間島書籍學院長)間島龍井에서 書籍展覽會開催準備次로上京하야 淸進洞長春旅館에留宿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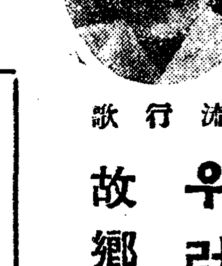
八面鏡

京城府의人口는 四十萬、그八分之一인 五萬名이 細窮民이라함도 入字사나온統計。
◇
이에對한 救助費豫算은 놀나지마라 單五百圓이라하니 每人平均 一金一錢也!。
◇
모든數는 一에서비롯하니 一錢도 크다하면 클지모르나 이야말로 京城府의 一大羞恥。
◇
葉錢한푼어더서 鷄卵한개사서 병아리한마리깨어서……式資金으로도 一錢은不足。
◇
生産資金으로 빌려주는돈이 三千二百圓이나 잇스니、그러케 甚히할말은 아니라고?
◇
적고만코는 덥허두고、이資金이 정말 細窮民에게까지 利用되는줄아는것이 딱한노릇。

紳士外套豫約開始
十月末日까지
奉仕品 二六、〇〇
A 三五、〇〇
B 四〇、〇〇
C 四五、〇〇
特 五五、〇〇
和信

Columbia
劃期的!
會心名盤!!
순풍에 돗을달고 (四〇五九一)
蔡奎燁

好職業
不景氣와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男女小兒이라도近間自宅에서될수잇는好職業中無休、葉書로申込하라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急募
大阪天王寺區堂ケ芝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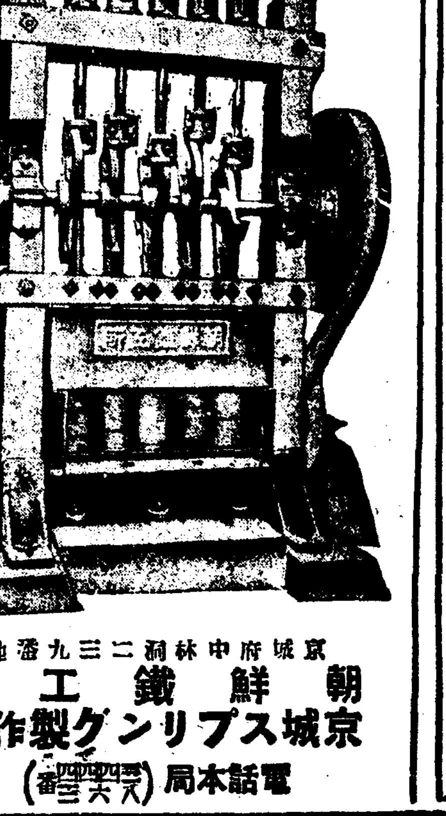


半島의名歌姬 미스・리ー갈
이는果然누구일가?
—二九八一—
流行歌 우러도우러도
故鄕아잘잇거라
一枚八十錢
REGAL
콜럼비아大衆盤리ー갈레코ー드

Columbia OKEH
敎育레코ー드
파이푸하모니카
鮮一樂器店
京城鍾路二丁目韓靑ビル
電話光化門五七七番・振替口座一七五五八七番

秋季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學則二錢切手要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新發明鑛山機
發條搗鑛機 (型錄進呈)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電話本局(四四〇一・三六八六番)

結核性解熱劑
エルボン 에루봉
에루본特有한作用은幾多의模造品의追從하기어려운點이잇다。이本劑가二十餘年來變함업시世界各國의醫學界에널이實用되고잇는所以이다。
에루봉은急劇한一時的下熱을식히기맘으로 病勢가不良하는것가튼[illegible] 그作用이 全然달으다、于先毒素에 抗拒하는白血球를增加하야 根本的으로더구나 徐徐하게解熱하야 病者의體力을消耗하지안코 몸스스로가 治癒케하는힘을 나게한다。本劑는또 腸窒扶斯熱、流感、肺炎其他傳染性疾患發熱에 適劑다 (錠劑、粉末)
金子醫學博士述 結核療法의大意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 關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本藥部より無代贈呈

● 强力 男性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日本總代理店 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小西新兵衛商店・三共

南北兩大赤色事件言渡

朝鮮共靑事件判決 大部分求刑대로

十年、八年、五年重刑級은差減이全無

傍聽은女子만五十名許可

【咸興支局電話】조선공산청년동맹사건정태옥(鄭泰玉)등 사십삼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은 이십오일 오전 열시반부터 함흥 지방법원에서 언도공판이 개정되여 미전(米田)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튼 판결언도가잇섯다 그리고 오늘은 녀자방청객만한 오십명을허락하엿다

氏名	求刑	言渡
鄭泰玉	十年	十年(未決通算二百日)
韓孝三	八年	八年同
柳丑運	八年	八年同
崔景德	八年	八年同
韓鴻翼	八年	七年同
愼鴻福	五年	五年同
韓永燮	五年	五年同
趙昌淳	五年	五年同
尹啓淸	五年	五年( )
金寬俊	五年	五年
朱又秀	五年	五年
崔元祚	五年	四年
柳榮俊	五年	五年
李根秀	五年	五年
全龍鎬	四年	三年半(未決通算二百日)
韓最碩	四年	三年半同
吳洪燮	四年	六年同
崔根西	四年	三年
劉在呂	四年	三年
文寶鎬	四年	三年半
陳海龍	三年	二年(未決通算三百日)
韓國來	三年	二年半
裴順彬	二年半	二年半
朴炳浩	二年半	二年半
李龍培	二年	二年(未決通算二百日)
李明淳	二年	二年同
方淳泰	一年半	一年半同
李曾孫	一年半	一年半同
魏在英	一年半	一年半
洪智燮	一年半	一年半
李熙定	二年	二年(未決通算二百日)
金恒均	一年半	一年半
朴亮善	一年半	一年半
朴秀甲	一年半	一年半
兪英基	一年	一年(未決通算二百日)
姜昌模	一年	一年同
申明燮	一年	一年同
朱亨基	一年	一年同
金濟鳳	一年	一年
朱秉箕	一年	二年
全河	一年	一年
任建鎬	一年	一年
李吉鉉		無罪
朴龍鎬		無罪
李康周		無罪
韓日奉		無罪

執行猶豫廿四名 六名은無罪言渡

全北赤色教員事件判決 今日全州法院에서

【全州支局電話】전북적색교원사건 언도공판은 이십오일오전열한시십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되야 상야(上野)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튼 언도가잇섯다

氏名	言渡
李起澤	五年
鄭禍寃	二年
趙光浩	四年
宣東起	四年
金兌淳	二年
金完根	一年六個月
鄭永翰	三年
以上七名五百三十日通算	
李起詠	二年 三百日通算
鄭雲翔	二年
李相若	二年
朴太鎬	二年
梁鎭順	二年
李康牧	二年
徐學鎬	二年
以上四年間執行猶豫	
嚴寶燮	一年六個月
金昌鎬	一年六個年
辛錫鎬	一年六個月
朴永武	一年六個月
高福述	一年六個月
洪能兒	一年六個月
李甲斗	一年六個月
李弘燮	一年六個月
太東春	一年六個月
徐三植	一年六個月
金琪斗	一年六個月
朴鍾丸	一年六個月
甘時斗	一年六個月
以上 三年間執行猶豫	
申升雨	一年
蔡道錫	一年
林鶴來	一年
桑原晟	一年
桑原巖	一年
朴斗玉(女)	一年
以上 二年間執行猶豫	
柳寅洛	無罪
朴鳳澤	無罪

具益均今日公判

前回期日의延期로

【新義州】루보=다년간 상해(上海)등지에서 조선○○운동을 하여오든 본적 평북룡천군 외하면 인봉동(龍川郡外下面仁峰洞) 구익균(具益均)(三○)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지난 이십삼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될예정이든바 동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야 이십오일로 연기되엿다한다

天候의異狀으로 本報空輸는順延

第二「코ー스」는京城、新義州間은 快晴따라明日決行

반도의 하늘을 남북으로 종관(縱貫)하는 본사신동우서헌비행의 제이코ー스 경성신의주간의 련락비행은 금이십오일에 결행할 예정이엇든바 갑작이 이전오일아츰부터 천후에 이상이 생기여 부득이 중지하기로되엿다 방금 오십이「미리바」의 저기압은 청도(靑島)의 남서방에 잇서서 동북동으로 진행하는중이오 천진부근에도 약한저기압이 잇고 고기압은 미리바를 보이며 일본해로 퍼저잇는 까닭에 조선은 전반으로 흐리고 동풍이 비교적만히불며 우긔가 잇는까닭에 천후가 회복되는 데 잇서서 명이십육일에 결행키로 하엿다

洛東江口三千餘民 生活方途遂漠然

一川式工事로海苔養殖全滅後

救濟策서기前에飢寒迫到

【釜山】락동강(洛東江)하류해태(海苔)가 소화팔년 동구년량년간계속적으로 전멸적 휴작으로 륙백여 양식업자와 그가족이천여명 합하야천여명은 극도로 곤궁하야지고 도이십팔만원이란거액의빗(일인당약사백칠십원)을 질머지게 되엿는데 그전멸적흉작의원인은 락동강일천식(一川式)공사의 실시에잇다고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보상또는 구제책을 강구하야 달라고 진정을 수차나하엿스나 일개년이되도록 아무런 구제책의 출현을 못보므로 일반양식업자들은 더욱마음을 조이고잇다한다 그들은 십년이란장구한 세월에모든정력과가진재력을 다기우리여 개척한어장을그릇치게되야 삼천여명의 생도가 막연하다한다 그리고 그중약이백여명은 반농반어인데 가을철이라 채귀들이덤벼들어 얼마간 지은벼도 먹지못할뿐아니라 가산도구까지 집행을당하고잇다 하며 일반하천어업도 일천식공사를 시행한후로는 그전보다 약삼분지이 이상의 감소를보여 이대로 간다면 그들의 전도가 우려된다하야또다시관게당국에 진정을하고 그결과여하에 의하야는 양식업자대회를 개최하야 대책을 강구하고자 방금준비중이라한다

具體的救濟策 當分無望

三木水産課長 談

금세요 전멸적 원인이 기술자의 조사에의하면 일천식 개수공사에도 관게가잇는것 갓습니다 좌우간 구제책을 강구하여야되겟는데 도당국으로서는 엇지할도리가 업습니다 적당한시긔에 적당한 어항으로 이민시키는것도 한방책이라고 생각은하고잇습니다만 아즉까지 구체적구제방책은 업습니다

一川式被害는 當局者도諒察

養殖者某 談

십여년간에 피와땀으로서 개척한 어장이 메허로 도라가고 엄청난 부채만 짐머지게 되엿스니 엇지억울하지안습니까 전멸천원인은 당국자들도 승인하는바와가티 일천식개수공사에 잇습니다 그러니 당국자는 반다시 긔아선상에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제할것이라고봅니다 좌우간 한번더진정을하여서 대책을 강구할작정이올시다 운운

시체찻다매맛고 無名氏걸어告訴

청량음료수「노비루」로 말성이되야 고소질까지되던 우서운사건이 잇다 부내창신동(昌信洞)일백사십이번지 김충진(金忠鎭)은지난구월이십팔일밤 그의친구김모와함께 부내인사동(仁寺洞)에잇는「빠ー비너쓰」에가서 청량음료수「노비루」를 청하다가「노비루」라는 음료수가잇는니 업는니가 말성이되야 마침내 그곳「뽀이」들에게 몹시마저 약일주일이상 치료할상처를 당하엿다고 진단서를첨부하야「빠ー비너쓰」의 변령삼십세가량된 무명남을 상대로 수일전에 종로경찰서사법게에 폭력행위로 고소하야 방금 이서에서 사건을취조중인데 사건이「노비루」에발단되니만큼 취조하는경관도 이 음료수가 잇는지업는지 알수업서 식료품점에 무러보는등 일시내기꺼리까지 제공하엿섯다

大京城의基礎調査 半部以上을完了

殘餘部調査費三萬圓도計上

南部道路準備도已成

대경성 실현의 포로그램은 대체로 금년안으로 공포되리라고 예상되는 시가지 계획령의 적용을 기다려서 비로소 본격적 순서에 드러서게되는것이지만 시가지 계획의 중심이되는 도로망에대하야는 부내는 물론이오 부외의 시가지계획령 적용구역 전반에대하야 경성부에서는 금년도예산에서 삼만원의 경비를지출하야 도시계획계(都市計劃係)의 통할아래 측량기수 이십오명을 삼반으로 난호아서 기초조사를 진행시키고 잇섯다 그결과 요지음와서 조사구역중에서 동으로는 한지면(漢芝面)숭인면(崇仁面)、서에서는연희면(延禧面)용강면(龍江面)、남으로는 북면(北面)과 영등포읍(永登浦邑)의 여섯방면은 대체로 끗낫는데 아직도 남은조사를마저마치려면 명년가을 까지나 걸릴모양이므로 다시명년도예산에 그경비로 삼만원을 계상하엿다

그중 경성영등포간도로만은 지난사월에 총독부에서 이미 건설하기로 결정되여 부에서는아직 시가지령적용전이므로 경긔도의위탁을 바든형식으로 표말을 세우는등 그준비설비를 진행하고잇다

土兵團出沒激增

平時의五六倍나增加

【新義州支局電話】최근조선과만주국경 사이에 토병의 출현이 이상히도 자저서 평시의 약오륙배에 갓가운출현 도수의증가를보이여 심하면 강을건너 칩입하는일까지 잇서 경찰당국에서는 이들을 토벌키에 고심중인데 이들을토벌 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비행긔가 필요하나 현재경비용비행긔는 정찰(偵察)에만 소용되는것으로 긔관총을비치할수업게 되엿까닭에 새로히비행긔의 구입이 업시는 공중토벌이 불능하야 평북경찰부에서는 큰곤난을 늣기고 잇는데 안전(安田)고등과장은 우선 신비행긔구입에 대한 준비로제일선시찰의 길에올낫다

竊盜로開店한 安永一에게八年

今日京城地方法院公判에서求刑

言渡는來二十六日

남의 물건을 도적하여다가 서울큰거리에 포목상점을 버젓이채려노코「카페」에 잇는여염분녀들을 안해로 삼고서 호화로운생활을 하고잇든 절도찬피의수로 지난 구월초승에 종로경찰서에 붓잡힌전과(절도)이범 안영일(安永一=一名昌德)에관한 특수상습절도(特殊常習竊盜)피고사건은 이십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삼강(杉江)판사 민(閔)검사의 당임으로 공판이잇섯는데 피고는 평양신양리(平壤新陽里)출생으로 평양에서 숭실중학교(崇實中學校)사년급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하고 잇다가 광주(光州)학생사건당시에 동맹휴학을 한닭으로 퇴학을당하고 그로부터 자포자기가 되야 도적질을 하고서 감옥에두번이나 다녀온뒤로 그냥마음을 고치지못하고 작년 팔월부터 일년동안이회에 금반지 백금반지 시계등귀금속품을 대부분으로 한개 칠십이개를 도적하엿다하며 그것은 서울 평양진남포 함흥 원산등 도회지로 다니면서 범행하엿는데 가격으로 일만오백원어치나 된다고 자백하엿다 그러고 그도적한 물건을 전부 요리집으로 도라다니면서 방탕히 노리다하고 종로 왕관(王冠)카페ー미인녀급 량순옥(梁順玉)을 안해로 삼아 창신동에스윗트홈을 건설하고 잇섯다하며 자긔안해는 일전에 형무소로면회하러 왓슬적에「언제까지든지 당신의출옥 할때까지 기다리고 잇겟다」고하더라는 말까지 일일히진술하엿다

심리가 끗난뒤 검사로부터징역팔년을 구형하엿는데 피고는 너무도 무거운놀로 늣긴듯이눈물을 흘리면서 벙청바그로 끄울려나갓다 판결은 이십륙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阿峴殺人犯 來四日開廷

경성법원서

이달 초하로날밤에 한방에서 자든 친구가 자긔의안해와 밀회하는것을 보고 칼로 찔러죽인 시외아현리(阿峴里)사십칠번지 김수경(金順敬)에 관한 살인사건은 수일전에 경성검사국에서 긔소되엿는데 오는사일오전시일에 공판이 열리기로 되엿다

借家契約不履行 家主에賠償請求

韓靑빌딩을相對로

종로 한청(韓靑)빌딩 경영자를 상대로 계약불리행으로 생긴손해배상 일만오천륙백륙십원 청구의소송——시내 종로일정목 사십구번지 리우상(李禹相)은한청빌딩 경영자 리철(李哲)한학수(韓學洙)량명을 상대로 전긔금액의 청구소송을 이십삼일오전에 경성지방법원에 이르켯다 그 리유를 보면 원고리우상은 금년륙월십사일에 피고리철 한학수 량명과 한청빌딩 문간 동편으로 십오평을 삼년간 사용키로하고 집세는 매월에 륙십원 상품판매 대금 전액에 대한 백분의구를 주기로하고 상품은양품잡화의 소매를 하기로 계약한뒤 오백원보증금을 걸고 대판(大阪)기린상조제조소외 열한곳 양품잡화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하야 지난 칠월조순까지 합계 근일만원의 상품이서울에 도착되엿고 기타 상품진렬 선반등 모든것을 다설비하여 두엇는데 피고들은 그뒤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빌려주어버리고 원고에게는 계약을 리행치 안흠으로 일만오천륙백륙십원의 손해가 낫다는것이다

水道栓開閉受付

土、日曜等日에도

경성부 수도과에서는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도마개의 개메의청구에는 응하지 아니해서 일반수도사용자의 불편이 만헛는데 이번에이를 고처서 일요일과 토요일(축제일도)에도 영락정분실(永樂町分室)과 룡산출장소(龍山出張所)에 담당원을 두어서 그청구에 응하기로 되엿다고한다

天氣豫報

東風、曇小雨

七百五十二미리의 低氣壓은 靑島南西方에 잇서서 東北方으로 進行中이고 天津附近에도 弱한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七百七十미리를 示하며 日本海로 擴大되야 滿洲及 朝鮮은 흐리고 日本內地는近畿以東이 개인外大概흐리고 九州西海岸은 東風이좀 强하다

氣溫 昨日 最高 二十四度、一 最低 七、一 今日 正午 一七度

白銅비녀에 鍍銀詐欺한銀工

鍾路署에發覺되야

백동비녀에 은(銀)을 도금하야 진짜은비녀라고 속이다가 경찰의손에 잡힌 금은세공직공이잇다 이십오일아침 부내종로 경찰서 사법게에서는 부외 신당리(新堂里)일백삼십륙번지 금은세공직공 송재회(宋在會)의 집을 습격하야 가짜은비녀 이백여개를 압수한일방 그를 체포하여다가 방금엄중 취조중인데 그는 전긔 장소에서 금은세공 공장을두고 백동비녀에다 은물도금하야 시시가약십전 짜리로 일원이십전짜리 순비녀라고 시내각전당포에 전당잡힌외에 전조선각처에 무려수천개를파러먹은것이탄로된것이라한다

昨日通過된 金晟鎭氏論文

臨床造詣가더깁다고

방금경성제대의 학부 소천(小川)외과에 조수로잇든김성진(金晟鎭)씨는 그간 학위론문으로 그대학교수회에『장폐색시소화액분비(腸閉塞時消化液分泌)에관한실험적 연구』라는 주론문과 참고론문세편을 제출하엿든중 이십사일 이교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야 영예의 학위를 엇게되엿다는데 씨는충남부여(扶餘)출생으로 금년겨우 삼십일세밧게안되는 청년독학자로서 제일고보(第一高普)를거처소화 오년에 성대 의학부를 제일회로 졸업하고 꾸준히 소천외과 교실에서 연구해오이로특히림상학(臨床學)에 조예가깁흔 터이라한다

◇사진은새의학박사김성진씨

綜合競技第四日

運動競技

淸津對京蹴OB 六對三으로淸津勝捷

養正、京實을遂擊破

조선체육회주최 제십륙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綜合競技大會)제사일인 이십오일은 동대회회기(會期)를압호로 이틀을남겨노코 본무대로 드러가서 이날정오부터는 전일에 승부를 결정치못한 양정대경실의 연장전(延長戰)이 열리어 드디여 양정(養正)이 이겻고 니어서 일반축구준결승전이 오후한시부터 관북의강호 청진축구단(淸津蹴球團)대경성축구단(京城蹴球團)전이 열리엇든바 이날 석간막음까지의 청진군은 륙대삼으로 경축군을 격파하야 승첩하얏다

당일 일긔는 흐린날씨에 약간의 동풍이 불으나 컨듸슌은 조흔편이랑 호하야잇섯다

蹴球中等部

養正2 京實1

【前1…0】【後0…1】【延1…0】

【中等部第二回戰】一對一의同點되여 日沒로因하야 延期되엿든 養正高普對 京城實業專修의 第二次延長戰은 二十五日 正午부터京城球場에서 金和集氏 審判아래行한바 兩軍熱戰 또熱戰을演하야 第二次延長戰에도 無得點으로 第三次戰에 드러가 後半五分에 養正LI李福男의 妙蹴으로 貴重한 一點을 너흐니致命的一點을 빼앗긴 京實軍의 惡戰苦鬪도 헛되이 結局二對一로 養正軍이 이겨서 準決勝戰에서 崇實과對時케되엿다(께임二時間十分)

一般蹴球部

淸津6 OB3

關北의覇者 淸津對 京城OB蹴球團戰은 二十五日 午後二時二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徐丙羲氏主審下에 京蹴OB先蹴으로開始된바 前半戰 十六分에 京蹴LW蔡金錫君 炙으로 一點을獲得한後 니여 二十五分 또LI崔成孫君의 炙으로 二對零으로 京蹴「리ー드」하드니 同三十二分에 淸津의 CF 姜泳弼君의 妙蹴으로 一點을挽回하야 二對一된다음 同三十三分에 RI金龍奉君의 炙으로 二對二同點되여 戰況은慨烈化하야 三十四分에 淸津CF姜泳弼君의 妙蹴으로 또一點을加하야 三對二로 淸津軍勝利하엿는데 其後京蹴軍三十六分에 蹴罰蹴을 利하야 崔成孫君이 차앗스나 失蹴으로無爲되얏다

【OB】		【淸津】
蔡金錫	LW	村日順
崔成孫	LI	朴 突
金永根	CF	姜泳弼
金命洙	RW	金龍奉
姜甚昌	LH	金군鎬
宋基命	LH	金學奉
李榮鐵	CH	引鴻南
宋基朴	RH	玄昌洙
金東秀	LF	方昌福
朴白龍	RF	韓虎峰
逸思李	GK	張吉錫

大學專門卓球

團體戰抽籤結果

全朝鮮大學專門學校 卓球聯盟主催의 第十二回卓球大會는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本社講堂에서 열릴터이라함은 旣報하엿거니와 團體戰의抽籤結果는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1 法專B팀對高商
2 醫專A팀對大學A팀
3 京醫專對大學A팀

【第二回戰】
4 法專A팀對1의勝者戰
5 大學B팀對2의勝者戰
6 醫專B팀對[illegible]B팀
7 大邱醫專對3의勝者戰

【準決勝】
4의勝者對5의勝者戰
6의勝者對7의勝者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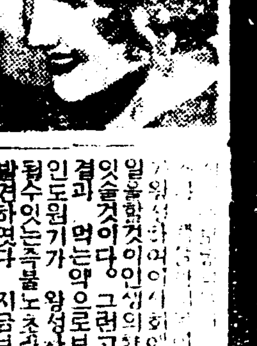
京城運動場納會

京城府에서는 二十六日 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 納會를 擧行할터이라는데 이날은 運動記者俱樂部 府政俱樂部對 府會議員 府廳食堂員合同팀의 野球及 庭球試合을擧行할터이라 한다

早慶野球戰은明日

傳統을 자랑하는 早慶野球戰은 明二十六日과二十七日의 兩日間 東京神宮球場에서 擧行할터이다

보양 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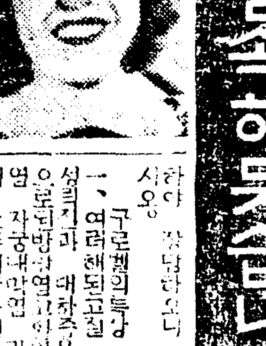
효력 최극상 최특등, 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 정분만 만히 느엇답니다

사람이 제일곤란한것은 건강하여야 할고십흔일이 만흔데 근래는 약한분이 만어진다 사람이 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원기부족하야 가운데로운일들을 못하게되다. 이것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 뇌를 마히쓰게되고 애를쓰고 번민이만어지고 함으로 자연히원기가쇠약하여 빨니늙게되다. 따라 양기도업고 최후에는 신경쇠약이니 폐병이니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되는것이다

일홈할것이외인생의청각도 연구하잇슬것이다. 그런고로 다년연구한 결과 먹는약으로 보음보양하며로 인도원기가 왕성하야청년과가티 될수잇는것을 발견하엿다 지금보통잇는생식기약이니 호르몬약이니하는것은 일시적으로생식기만흥분식혀 양기와정력이만업서고그후에는심히약하여지고마는 이가이자(KAIZEN)는 동력인원기를왕성하게하는동시에 보양보음을 하야생식기를자연히 흥분식히는 상용이 잇슴으로 원기와 강기는점점왕성하여질뿐이요 쇠약하야 지지는안는다 류행병을 앓엇던지 과음고롱하고 또선천후천적으로몸이약하야 양긔부족하고원긔업고 신경쇠약증이 잇는분은 속히가이자를 쓰시오. 양기부족, 음위, 속히되는분, 불감증, 쾌감업는분, 신경쇠약, 비열증.

【약가】중증에十원、경증엔五원、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선금은무료(약은회약이오)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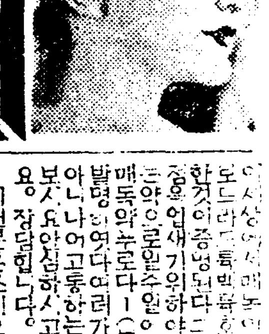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약(해루미도ー루)도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전보다만히더늣엇답니다.

◇남녀의림질, 부인의백대하증、남녀냉증、오좀소태、궤경고르지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고롱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틀님업는 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 결과 환자의안심과신용을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쓰시오.

一、구로벨의특장
一、여러해되고질 특히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급속、튀독성으로되방광염이나 자궁내막염 관소염 란팔관염 등에효과
二、이약은 다른약과가티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하성간에오래된 고질만성이라도 일주일내로 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 약상하는약이 업는데 구로벨만은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 업슴으로 위장약한분이 만흔히먹어도 탈하나안난다는말은 효험보신여러분의 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 이약이속한리유는 다른약을오래쓰게되며 그동안 조선이끈난한손지엿다

【약가】완고약성에九圓、마셔크타제증에五원、대하증、냉병기타부인증에五원、급성과부인오좀소태에三원、지방송료선금무료、대금인환은삼십전 (五원이니十원이니다일주일분)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요



효력 최극상 최특등, 주사이상이라한다주약을더만히느엇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선조유전또는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 다시루비루상륙백륙호주사맛대하여야것우일시적으로 움너지지만 원지기잘안되고여러번재발함으로 이러한분은쓰시요. ○남녀의국부가 허렷스며 가려운데 눈이 가미하고 팔다리가 수시고 목이 정기고 머리가 빠지고 여기저기종기가터지는데 또창병김치구허는데 등에신효합니다 요 장담합니다.

【약가】완고용七원、중증용五원、경증용三원、지방송료선금무료 대금인환이면삼십전(약은회약이요)

마일르스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 안맛거나 팡고와틀니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돌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驛東停留場側(五)제일은서양음칠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十月廿五日낫부터 晝間二回興業 晝間映畫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正午十二時부터午後六時半까지
映畫 加茂、植田、右太프로오合同大作 新興프로작品超特作時代劇
天一坊と伊賀亮
마ー레이及까이쿠베리氏原作의 舞踊劇에서 펄원 방앗간 ... 喧嘩舞蹈會
原作 李智秀、監督 金蘇鳳 방아타령 主演 李錦龍
옹스라카스트
株苑 特別大公演 十月二十五日부터四日間
新婚夫婦 小女伽
歌劇 아리비아戀舞曲 全卷
元治生作 金蓮實、其外三十餘名의配役
스켓취 멋대강씨
女流歌手界名星…金玉實…特別出演
男女歌手出唱
新作舞踊發表…白潔子 金小君
四、支那文時代劇 劇有史上革命篇 新蝶…鄭義恭傑作品
白龍山龍騎隊 全二幕
金宗益、其外五十餘名共演
仁寺洞 電光二三六 朝鮮劇場

콜럼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十月二十三日부터特別大封切
監督 번자민스토로프氏
恐怖의밤
巨星버라루고시ー氏主演 에드위인터、씨스에ー맨 助演
殺人鬼다시稷殺하엿다! 비밀지돈新聞標題를부친疑問의屍體! 墓穴에잠긴暗影의亂舞! 千萬財産을相對로暗躍하는사람은?
大都映畫社超特作連續時代劇 大作龍三監督作品
燃ゆる叫び 前篇 一時上映
松山宗三郎 主演 久松玉城 助演
次週封切豫告
十月二十七日부터三大名編併立封切 壯絶無比!纍纍相摩!!空中戰映畫의常王篇
大空의地獄 와너바크스타ー氏主演
유社超特作全發聲大冒險篇 拳銃의制裁 찌메이나ー드氏最后作品 乞期待
貫鐵洞 電光二三九五 優美館

大東先生도 쓰십니다 (健脳의藥發弟劑)

大衆奉仕 廿錢均一
晝夜三回(晝間連續入替なし)
當る廿五日特別短期(四日間)
新興キネマ超弩級現代劇 原作 小島政二郎 大阪朝日新聞連載 監督 村田實 オール・サウンド
花咲く樹 (廿五日 廿六日) 前篇なみ子の卷
市川春代 主演 小杉勇・島耕二・鈴木澄子・志賀曉子 助演
獨乙ウファ超特作日本版 監督 ラインホルト・シュンツェ
カイロの結婚
サウイリイ・フリッチ レナテー・ミュラー主演
新興キネマ超弩級現代劇 原作 小島政二郎 大阪朝日新聞連載 監督 村田實 オールサウンド
花咲く樹 (廿七日 廿八日) 後篇エマ子の卷
志賀曉子 主演 市川春代・小杉勇・鈴木澄子・島耕二 助演
『御斷り』「花咲く樹」は尺の爲め前篇を二十五日と廿六日の二日間後篇は廿七日と廿八日の二日間上映致します
永樂町 電本三五一 中央館

에기들에게는 겨울이두려운시절 탈업시넘기자면 「이런점을주의하십시요」 (三)

京大醫學部小兒科研究室 李聖鳳

몸을 청결이하는것은 어룬이어른을물론하고 보건상필요한은 두말할것업습니다 특히 유아에게잇서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아이의목욕은 신진대사를 왕성케하므로 피부는물론 몸이 튼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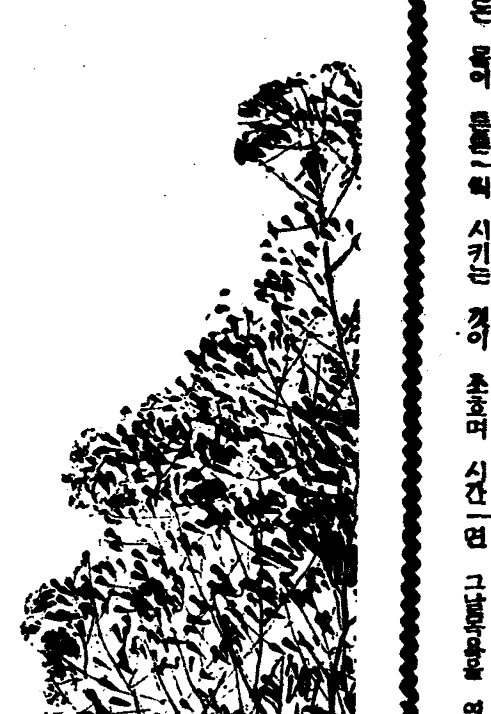
三、목욕

해집니다 그로 다른데이 업는이상 목욕을 자로 시키는것은 무엇 보담도 보건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방법을 그르치면 도로혀 그아이에게 해를 주는때가 잇습니다 그럼으로 유아의목욕은 매일 혹은 격일하번씩 시키는 것이 조흐며 시간은 오후두시경후가 제일적당합니다 물을데우기 편한관계상아츰혹은 저녁에 목욕을 시키는분이잇는데 이런때는 감기가들기쉬우니까 될수잇는대로 피하서야됩니다 목욕할때는 찬바람이 드러오는틈을 막을것이나물론이고 물의온도는 정온(度)三十七도 가량이 조습니다 이것은고온에 습관을 시키면 감기를하는뒤에 곳외출을 해서 감기들게하는분이 만흐나 목욕뒤곳외출은 절대로금해야 합니다 가령 목욕뒤곳외출할일이 잇스면 그날목욕을 연기하던지 그러치안으면 목욕을시킨뒤 몸이다마른뒤에 기달녀서 외출하시도록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보건상의주의는 만흐나 이세가지는 지금부터 특주의와준비를해야되며 또한 그다지힘드는일이안코 엇던이할수 잇슴을떼러이것을 게울니하지안코 잘하면 아이가 튼튼해저서 병에대한 저항력이강해지므로 한겨울을 무병하게 보낼수가잇는때문입니다이러한의미에서 이세가지에 관한준비와주의도 나무 무배체를준비보담 못하지안흘리라고 생각해서 쓰게된것입니다。

十月二十六日밤

家庭



조고마한부주의로 "실명"되는일 『눈위생』에리해를가지자

우리네가 눈을 소중히 역이기는합니다만 외국사람과가티 그렇케 소중히여기고 또거기에따른 눈의위생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들의 무지와 부주의로 말미아마 색별가리빗나는 눈을 가진어린애 기록 불행히 눈멀게하는수가 여간만흔것이아닙니다 그럼으로 여러분가정에서는 이 점을 깁히생각하시와「눈의위생」에리해를갓고、먼저말한 불상사가 업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말할것은 근시(近視)입니다 근시는대개 열서너살내외로부터 시작하야 십칠팔세에 대단히납바저서 스물대여섯살에가서 끄칩니다

현대문명이 나아갈사록 근시도 늘러갑니다。최근에 문부성에서 조사한바를보면 장래세상의 주인공이될 저절은 청년 학도의 반수가량이 근시안이라 합니다

근시가 대단치안흘때는 동수안경을써서 먼데것을 보게됨으로 허수히 녀기기 쉽습니다。그러나 도수가늘면 눈알에변화가 생겨 엇던경우에는망막(網膜)이 벗겨저서 실명하는수가 더러잇습니다、근시안은 유전합니다만 근본원인은 체질이 약한닭이라하니 예방하는데잇서서는 몸튼튼히하는것이 첫조건이 되겟습니다。그리고 직접조건으로는

(一) 가차운데 것을 보드래도 한자(一尺)이내로 눈을 가차이말일

(二) 물건을 볼때에는 자세를 바로잡을일

(三) 어둠침침한데서 책보지말일

(四) 눈이 너무 피로하지안토록할일

이상의 네가지를 직히지안해서는 안됩니다

◇각막연화증

각막연화증(角膜軟化症)이란병은 어린애에게 만흔 눈ㅅ병인데「비타민 에이」가 몸에부족하면 생깁니다

눈의흰자우가 빗나지못해지고겁음침자도 차차흐려지며 또울때목쉰소리로 우는수가만습니다。그런데이병이지나치면 눈흰자우에 혹이생겨 드디어 눈이머러 버립니다。이병에안걸리도록 하자면 평소에「비타민에이」가만흔 음식물을 메이고 특별한경우에는「비타민에이」로맨든 약 간유(肝油)는속을 먹어면 좃습니다

◇결막염

눈에눈꼽이 잘끼이고 흰물도 잘나고 책을보다거나 눈ㅅ는잔뜩부칠때 눈이 치침해지는 병입니다 이병은 발열을 한다거나 술닭배를 너머먹어서 생기기도하고 눈에 미균이 드러가서 생기기도 하는데 원인은여하간 속히 치료해야합니다

◇도라홈

눈ㅅ병가운데 흔한것이데 손수건、세수ㅅ대야、목욕탕、책등속—엇재든『도라홈』이잇는사람이 손대인물건에서 전염되는병이니 이병은 좀처럼 잘낫지도 안코 실명되기도쉬운병입니다

—이외에도 눈ㅅ부터처서 실명되는수도잇지만 부모의피가 납바유전이되어것거나 결혼배우자를잘못택해서 그자식이 실명되는수도 적지안습니다 그리고 결혜각기에서 오는눈병도만흔데 엇잿든 이런병은『눈의위생』에대한 리해를 평소에가지고 눈이의심스러울때 한시밥비 치료하면 완전히 치료할수잇는것입니다

二十五日 (金)

◇午後六時二五分 講話 保溫과鍛錬 朴東鎭

◇同七時三○分 講話 在滿朝鮮人의農家經濟와生活狀態 鮮于全

◇同八時 唱劇調 愼淑仝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分 자즈音樂(레코ー드演奏)(레드니콜스管絃團)

◇同九時 놀양外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二十六日 (土)

◇午後○時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카미카行進曲(스미스作曲) 二、캘로로다의 달빗(킹作曲) 三、카메하메하 왈쓰(킹作曲) 四、우쿠레레 무…(코라도 作曲) 五、그리운 하와이…(스미스作曲) 六、하와이의노래 七、하와이섬왈스…(쿠센짜作曲) 第一키타 金聖燮 第二키타 金俊英

◇同一時三○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 —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

◇同四時 아式蹴球試合實況 朝鮮蹴球協會主催第十六回 綜合競技大會 蹴球京門部決勝戰 延禧專門對普成專門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合唱 中央保育學校生 指揮 洪盛裕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외心理 李晶燮

◇同七時三○分 講話 在滿朝鮮人의農家經濟와生活狀態(二) 鮮于全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 (가)느진중모리 (나)… 二、並唱 (가)短歌 (나)四季中歌 ○堤頭景歌 沈相健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分 映畫이야기 보ー엠 成東鎬

◇同九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調平擧 三、羽調頭擧 四、平弄 金花香 郭在順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二十七日 (日)

◇午後○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唱劇調 沈素姬 鼓手 池龍九

◇同一時三○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同六時 하ー모니카合奏 一、바가롱드의노래 二、井上小夜曲 三、雙頭鷲行進曲 四、메리ー위도ー 五、早春將軍 아르페·하ー모니카·밴드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同七時三○分 라듸오·드라마 喜劇『우리아버지』一景 (配役) 金첨지……金海雲 永祚(그의아들)…吉七水 桂順(딸)……金蘭草 朴心浩(직공)……李流星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効果班

◇同八時一○分 音律 無山會像 洋琴 金景元 奚琴 金周卿 短簫 金明洙

◇同八時三五分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寧邊歌 三、방아타령 四、양산도 五、靑春歌 玄山玉 細笛 高敬德

◇同九時 合唱과獨唱 一、合唱 致賀하세 二、二重唱…(趙錦子、徐守俊) 三、종달새…멘델스존

家庭衛生講演會

오는二十六日밤七時本社大講堂에서

入場無料

시내락원동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서는 일반가정의 위생사상을 보급시키고자하야 만흔노력을 해오든중 금월이십륙일ㅅ밤본사대강당을 빌어서 제일회위생강연회(第一回衛生講演會)를연다는데 특히 입장료는밧지안는다고한다 위생에관한활ㅅ동사진도 멘죠류를놀리어 청강자의취미를 모두게할것은 물론이요 의학게의 권위인 구영숙(具永淑) 정구충(鄭求忠)의 두박사로부터 유익한 강연이 잇슬터로 미리부터 가정부인의 인긔를끌고잇는데 강연제목은 다음과갓다

小兒急性疾患에對한家庭療法 具永淑博士

冬期家庭衛生에對하야 鄭求忠博士

第三回秋期音樂大會

詳細追後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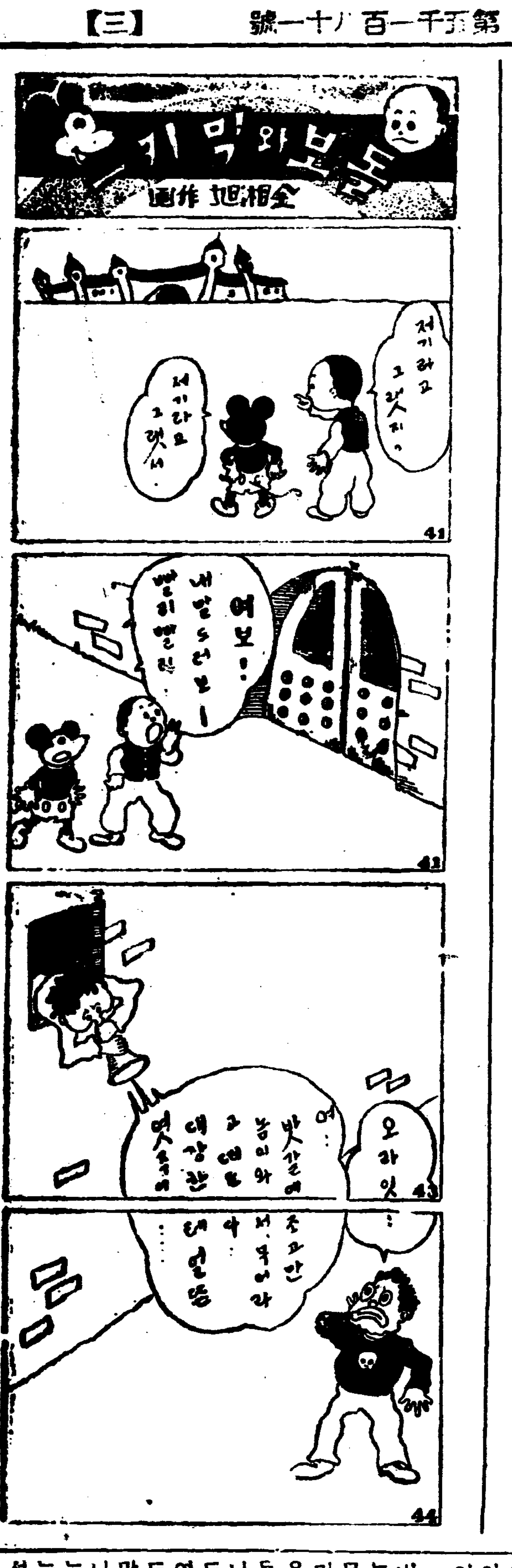
出演樂士 金永煥、玄濟明、洪蘭坡、蔡善葉、朴景嬉、京保合唱隊

『時日』十一月二日(土)下午七時半

『場所』朝鮮日報社大講堂

主催 京城保育學校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聖畫 【13】

李孝石 作 安夕影 畫

유례에게는 아직 적수가업고 나에게는 낙야가안생겻슬때엿다 나는 학교를맛첫슬뿐 아직도 생애의지향이서지못한채 세ㅅ방에 뭉굴며 하는일업시 나날을지웟다。학교에서강바든 철학의체계도 인생의향방을 결정하야주지는못하얏다。해골을모아짜 노은비인갑과도가튼 쓸모업는 철학의 만흔노오트를 모조리 뜨더 불살너버리고 구지 활긔를차즈랴고 생활의압길을노렷스나 헛수고엿다。가량 직업으로말하더라도 나의마음을땡기는 직업은 하나도업섯고 그러타고 가지고잇는 과만한재산을 쓸길도 그것을밧치고십흔방향도 업섯다。그런 나의무위의성격을 비웃는듯이 유례는 그자신의굿센신념의 목표로향하야 활긔잇는 행동의 열정을 모조리 쏫는것이엿다。

마참 유례는 그를길러준 녀학교의 파업을 지도할임무를띄고 주야로 불ㅅ구할무렵이엿다 기어코 파업은 불성공으로 단결은 깨트리지고 희생자를 내기 시작하자 이윽고동뒤의 주동이 주목되엿다 발서 구체적인물이 판정되여 지층을밧게 될줄알엇슬때 유례는 하는수업시 거리의눈을 피하야 이쪽저쪽 몸을 옴길수밧게업섯다

『마저마저 결닐듯한형세에요』

신변에가까운 그물기슭을 피하는 물고기와도가튼 민첩한자세로 나의방에 뛰여든것은 느즌 저녁때엿다 긴장된때의 눈방울이란 공긔가티차고 전신에는 탄력이 넘첫다 방향일흔물고기를 나는방속에 가두엇다방안에서는 유리항아리안 이금붕어가티연하고 부드러운자세엿다

신변의 위험은 깜석가티니저버리고 아무일도업섯든것가티밤늣도록 제각각 책장을 번겻다 무미한 파업의 경과보고를 듯기도 괴로운 일일듯하야 나는 유례에게 책을권하고 나는 낡든소설책을 펴든것이엿다。그러나유례자신의 마음속은 알바업서도 나는 멋처럼숨어든 유례를 여페노코 마음속에는 아무파도도업는드시 천연스럽게 독서에만열중하고잇슬수가업섯다。당시 나에게는 달리 애정의 대상되는녀자가(란야가아니라)잇섯다고는 하얏스나、의식의 그어느구석에 유례의자태도 늘 떠나지 아니하고 맴돌고 잇섯든까닭이당 그것이 곳 애욕을의미하얏든지 안엇든지는 알비업다。

책에지쳣든지 자정을넘엇슬때에는 유례는 한구석에 그대로 쓸러저 쉽게 잠이들엇다。이불을겹처주고 나는 내자리에누엇스나 눈은말뚝말뚱해지고 정신은 더욱 맑어갈뿐이엿다。등불이 지나치밝은죄도 잇섯겟스나 그러타고 불을끌수도업섯다。하는수업시 이불을폭쓰고 고시랑거리다 어느결엔지 약간 잠이든 모양이엿스나 그것은 짧고 어지러운잠이어서 다시 눈이뜨엿슬때에는 끝이무겁고 관자노리가 후둑후둑뛰엿다。잠드는약이라도 먹어볼까하고 이러나책상설합을 뒤질때 애써 안보려고하든 유례쪽으로 자연 눈이 가는것을 엇지할수업섯다

목석이 아닌바에 사람을엽해두고 그러케 끈하게잠들수잇슬까。유례는 이불을차고 무례하게 이렇몸을들내노코 얼골을붉으레붉드리고 단잠에 폭빠저잇지안흔가 방안에는 나밧게는꺼릴눈은 하나도업섯스나 그래도 그의벗은 몸을덥허주랴고 가까히가 이불을 끄러올니다 나는 힘을일코 그자리에 푹주저안저버렷다。정신업시 유례에게 몸을부드첫다。얼골이 맛다엇다방안이 어지럽게 핑핑돌앗다…。

『웬일이서요。이럴법잇나요。』

깜작놀나 유례는 눈을떳다。그러나 짜증을내며 불시에 나의빰을치는——법도업시 애써나의몸을 밀처버리랴고도 하지안헛다。

『임의 사랑하는사람이 계시지안허요。』

다른말도 만흘터인데 하필 이러한말을함은 무슨뜻인지를 알수업섯다。결양의말일까。련애의 공덕을 직히자는뜻일까。사랑하는사람이업섯다면 모든것을 나에게밧칠수잇다는 의미일까。나는 금시에 랭정한 반성으로 도라가며 더욱든몸이 순간에 식어버리고 나의팔이 몹시겸연쩍음을 늣겻다。

유례의몸은 별안간에 떳떳한 피를일코 마치 신성한그림가티 엄숙한『타부』가티 차눌하게보여 더 닷치기어려운것이엿다。그럼으로 내가 불가티 유례를 홀치랴고한것은 사랑이엿든지 그러치안흐면 단순한 즘생의욕심이엿든지를 몰으고말엇다。

國産 カッピー
コールドバニシング
카피크림
爽快한발는맛! 科學的美肌作川! 藝術的香氣의馥郁!
카피크림 이야말노 의殿堂에의 關門을여는 唯一한열쇠!!
콜드 大形 小形
바니싱 大形 小形
良品은빗난다 豊香園製品
東京牛込 本舖 田端豊香園

●頭痛에 ノーシン(노ー신)
効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第一조흔비누 花王石鹸!
잔겨품이일고、누구에게든지 환영밧는내음 새婦人들의 부드러운살결에 가장穩和한作用을하야 皮膚를 健康하게潤澤나게하는비누!
近代科學의 粹를蒐集한 東洋第一의 石鹸工場에서 製造되는 世界最高의純粹度九九·四%의비누!
眞正한 美를探求하시는婦人네들이 花王石鹸을 쓰시는것은이때문이올시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有名百貨店雜貨店·藥房에잇소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기름안인기름 기름을실혀하시는분도곡滿足하게됩니다
ララン(란) 洋髮香油
50전
엇던化粧品店에든지잇습니다

十月二十五日낫부터三日特別興行 市中을衝動식힐만한二大巨篇 同時上映 每日三回興行 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始映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坪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파라마운트社猛獸映畫 超特作巨大篇
密林의王者
世界水泳選手바스타크랍부主演 아후리카探偵家白人의夫婦는猛獸들에게襲擊을當하야드듸여世을떠낫다奇蹟的으로不幸으로어린이이만救함을밧아서獅子의親友가되여二十年이란歲月을보내엿다
新興키네마社太秦特作品 菊池寬氏原作 中重雄氏監督
現代劇 妖麗
主演 中野かほる 松本泰輔 桂珠子 荒木忍
破産宣告를當한아버지는自殺하엿스며只今에는叔父님宅에서쓸쓸한生活를하여가는可憐한女性이잇섯다…破産의原因은叔父이라는것을안그는復讐하기爲하야弱한女子이엇스나叔父집을나왓스니快壯한그女子의活躍!
여러분의 鐘路四丁目 電光二一○番
第一劇場
朝鮮日報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近代山岳史話

駱駝山 (24)

詩人遺址申垈우물

湖岩

城東駱山里에 水石이 맑스고 林木이 은슥하야 幽深의 勝景으로 適宜한 駱山은 녜로부터 騷人墨客들이 만히 살엇섯다 仁宗朝大詩人 申光漢가튼분도 이駱山미테 살면서

自然美를 노래하엿섯다 (人亡古宅이라하더니) 申光漢 집터엔 그의마시든 샘우물만 남아잇서 오늘날까지 一般人이 申垈우물이라 일커른다 그位置는 바로 大學뒤 東崇洞 一二九番地인데 湖南富豪金鍾翊氏의 所有로 도라가다 石間에서 솟아나는 淸冽한 샘물은 그 隣近에 사는 多數사람의 마른목을 축여주며 언제나 이申垈우물에는 바아지를 가지고 물푸는 안녀네가 끄칠때가 업다

申垈우물압헤도 새로 생긴 우물이 잇지마는 그물은 分量도 적고 또맛도 그만 못하다한다 申垈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나는大學에잇는 李源翊君과 함께 그동리 사람安某를 案內로하야 申詩人이 살든 遺址에 무든古蹟이 잇는가 하야 그附近을 뒤젓스나 別로 신奇한것을 發見하지 못하고 말앗다 그案內人의 말이 十數年前에는 申垈우물의 後面岩石에 紅泉洞이라고 삭인

刻字가 잇더니 언제 업서젓는지 지금은 볼수가 업다고 함으로 그곳에 가서 아무리살펴야 다른刻字는 잇스나 그것만은 마츰내 뵈지 아니하드라 그러나 이곳의 岩石이 아름답고 蒼松이 古雅하야 當時 駱山申光漢을 두고 지은 張維의 詩에……澗有蒼松與岩石 岩以貞剛松以節……紛紛小兒豈知此、松自青青岩自立의 光景이 그대로 생각킨다 蒼松과 泉石은 오늘날도 依然하건마는 申詩人의 살든집터는

主人이 여러번 박구엿고 그遠近一帶는 모다 새사람의 文化住宅이 되어버렷다 申垈우물의 옛主人이든 申光漢은 字는 漢之오 號는 企齋오 또號는 駱峯이니 이는 말할것도 업시 그가사는 駱山을 사랑해서 이가티 號를 삼은 것이다 駱峯申光漢은 有名한 申叔舟의 孫으로 代代簪纓이 不絕하야 文人學士가 그一門에서 쏘다저 낫슴은 世人이 다 아는바이어니와 駱峯은 그中에도 有名한분이다 그가 成宗中葉에 나서 明宗乙卯에 七十二歲로 逝去할때까지 벼슬도 大提學과 贊成을 지냇스나 政治보담도

文學을 조화하고 또[illegible]엇슴으로 그를詩人이라고 브른것이다 그의 有名한 逸話가 하나 잇스니 일즉 刑判이 되엇슬때 詩만 짓고 政事를 도라보지 아니하야 訴訟이 싸이고 囚徒가 넘치어 獄舍를 增築하지 안흐면 아니될 지경에 이르럿다 그리하야 一日은 申光漢이 獄舍擴張을 請하엿더니 中宗大王께서 獄舍擴張이 刑判을 밧굼만 갓지못하다 하시고 光漢을 갈고 다른이를 刑判으로 삼으시매 刻에 訴訟이 곳 讞決이 되고 囹圄가 거의 부이게 되엇다 하니 이로써 그의 一面을

詩人宰相 엿볼수 잇다 그를 어데까지든지 詩人이오 文士요 政治는 文을 짓고 詩를 읊는 뒤에 한 餘事로 하든것에 지내지 못햇다 申家에서는 詩人으로도 申光漢을 크게 推崇하야 그를 徐居正以後 成俔、朴誾與 黃廷彧과 아올러 中宗朝間의 四家로 잡앗다 申光漢의 詩는 어데까지 淸新하기로 特色이 잇섯스니 이를터면 夜宿村舍詩의 第二聯에 野水喧石、野香蕙澗花 그他

神勒寺詩에 好雨留人故不晴、隔簾終日聽江聲、歸又報春消息、山杏花邊鼓歌聲。前者는 盤上[illegible]珠를 굴리는[illegible]과 갓고 後者는 溪山春潤의 그림을 본듯한 感이 잇다。

現下朝鮮語의重要論題인

『ㅎ』音에對한小論 ③

洪起文

『ㅎ』音이란 子音의 하나라고 하니 子音이란 大體 어떠한것인가?

(一)聲音을 낼때 聲帶를 振動시키는 境遇도 잇고 振動시키지 안는

境遇도 잇스니 前者를 有聲音이라고 하고 後者를 無聲音이라고한다.

(二)聲音을 내다가 그 聲音의 나오는 길을 좁히다든지 막는다든지 하야 中間의 障碍를 加하는 境遇도 잇고 加하지 안는 境遇도 잇스니 後者를 無碍音(或云朗音)이라고 하고 前者를 有碍音에 對하야 音이라고 할수 잇다. 그런데 有碍音을 子音이라고 하고 無碍音을 母音이라고 한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母音이 有聲音으로 制限됨에 反하야 子音에는「ㄱㄷㅂ」과가튼 無聲音도잇고「ㄴㅇㅁ」과가튼 有聲音도 잇는터로 有無聲 兩音에 通한다. 그러나 흔히들 子音은 獨立한 音을낼수업고 오즉 母音에 依存해서만

發音할수 잇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되 決코 그런 것은 아니다. 子音이 獨立한 音을 내지못한다는 것은 究竟한 音으로 成立할 수 업다는 意味인즉 예조부터 音의 한 單位로 세우는 그 것이 오히려 矛盾되는 行動이다. 本來 有聲音은 聲帶의 振動을 따라길게 낼수 잇스되 無聲音은 아모래도 短促할수 바게 업스며 子音中에는 勿論 有聲音도 업는 것이 아니로되 中間의 障碍로 因하야 그發音이 아모래도 순하롭지 못 하다. 그러나까 子音이라고 全然 獨立해서 낼수 업는 것은 아니언만 母音에 附合되야 한 音節을이루게 되는것이 事實이다. 萬一 그 點으로 본다면 『ㅎ』音도

獨立한 音을 가지고 잇슴에 틀림이 업지 안 한가? 어재서 母音의 아래로 가서 바침이 되야서는 默音이 된다고 하는가? 거긔에는 勿論 一定한 理由가 업지 안타. 나는 지금 그 理由를 들어 보이겟다.

모든 子音이 發音中間 一種의 障碍를 밧는다고 하니『ㅎ』音은 大體 어떠한 障碍를 밧는가?

(一)口腔으로 聲音을 내다가 障碍를 加한 때 그障碍를 突破하고 끗끗내 口腔으로 내는것은 口腔音이요 다시 그 聲音을 鼻腔으로 도리키어 내는것을 鼻腔音이라고 한다.

(二)聲音이 나오는 길을 妨害하는

形態로 보아서 그길을 아조 막아서 버리는 것은 閉塞音이라고 하고 그 길을 그저 좁히기만 하는것은 狹窄音이라고 하며 다시 그 妨害를 突破하고 口腔으로 괴어히 내는 形態로 보아서 閉塞된 것을 다시열고 내는 것은 破障音이라고 하고 그 좁아진 길에다가 摩擦하야 내는 것은 摩擦音이라고 한다.

그런데 『ㅎ』音은 口腔音인 同時 摩擦音이다. 口腔音인 點으로서는「ㄴㅇㅁ」等보담「ㄱㄷㅂㅅ」等에 가깝고 다시 摩擦音인 點으로서는「ㄱㄷㅂㅈ」보담「ㅅ」等에 가깝다. 그러나「ㅅ」은

狹窄 摩擦의 妨害를 當하야 喉頭를 通過해가지고 口腔으로 나오다가 비로소 狹窄의 妨害를 當하야 摩擦의 作用을 이르키는 것이지만「ㅎ」音은 애初 喉頭로부터 口腔으로나오라하자고 舌根을 조금들어서 軟口蓋의 사이를 좁히매 喉頭에 摩擦의 作用을 이르키고 정작口腔內를 들어와서는도리어 順坦하게 나온다.

萬一『ㅎ』音으로 부터 喉頭摩擦의한作用만을 除去한다면 아모런 獨立性도 가지지 못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喉頭摩擦은 아모래도 口腔內摩擦과가티 便하지 못 한데다가 또『ㅎ』音은 獨逸語의 (Ch)나 露西亞語의 (X)와 가티 强한 摩擦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침은 姑舍코 母音우에 잇서서도 『나히』가 『나이』『싸호고』가 『싸오고』와 가티 失音이 되거나 『형님』이 『성님』『놓자』가 『소자』와 가티 그 摩擦의 作用을 齒槽突起와 舌端의사이로 옴기어「ㅅ」音으로

變해 버리고 만다. 母音우에서도 제대로 發音되기 어렵거니 바침으로서도 勿論어려울것은 정한일이 아닌가? 더구나 朝鮮語의 바침이란 獨特한 點이 잇슴에랴? 바침에 對한 考究를 한번 試驗하야 본 분으로서는 바침으로서의『ㅎ』音이 默音되는 理由를 容易하게 認定할수 잇다. 나는 이제 그리로 붓을 옴기겟다.

訂正 前回分 第一段末尾의『차처ㅊㅊ』는『최천ㅊㅊ』요 第一段第四行의『샤셔쇼슈』는『쇼슈』요 또 同段第十八行의 (ㅜ)는 英字가아니라 (우)의 母音이옵기 玆에訂正하압

隨筆

마음의逆旅 (上)

柳致眞

물장수·그女子

뻬비적! 뻬비적!

새벽이면 내머리 마텬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내머리마튼 바로 행길이다。물장수의 물지고 가는 소리듯 걸을때마다、물지게가 뻬비적어리는것이다。

잠결에 어섬푸레 이소리를들으면 마치 저ㅣ먼幽谷에서 올려오는 季節의變音갓기도한다。아니『人生』과『人生』과의흐름지이에 조그마한 陝路가잇다면 저소리는 그陝路를 기어올려오는 十字架의 뻬비적어리는 소리는 아닐까?

나는 누어서 부질업시 이가튼 생각을 해보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물지게소리를 새벽마다는 못듯는다。나는 너무 내가困할때에는 제정신을 이러버리고 늣잠을 즐긴다。나는 한個의『룸펜』이다。

내가 그전날 초저녁부터 잣거나 그러찬으면 그날健康이 좀 勝할적에는 나는 공교로히 물장수의 소리를듯는다。그는 새벽첫쪽두마리부터 물을져나르는 것이다。

뻬비적! 뻬비적!

이소리는 유난히 내정신을 刺戟한다。내눈은 맑아지고 다시 잠을 못자게된다。마치 이소리가 내머리맛 행길을 지나가는 물지게소리가아니오、直接 내등이소리가 얼마나 나를 威脅할 것인가?

×

나는 오늘 그녀자를 맛낫다 그녀자는 몃칠전에 행길에서나헌테 뎀벼들든女子이다 나히는 서른일곱 윤등윤등한多血質이다 그가 白晝에 내품에 뛰어들때에는 나는 내몸을 避할겨를이업섯다。나는 精神업시 그女子를 터 잡엇다。

이크!! 웬일입까?

그의後身부터 全身으로 물이부터 오르는것이다。

그女子의얼굴은 질려서 흙빗치이다。속곳에까지 물이 붓혓다。치마를 버슴새도 업다。그늘 그에 땅바닥에 뒹굴엇다。자반뒤집듯 發惡이다。이것은 修羅場이다。

나는 그女子의 궁둥이를 첫다。죽처럼 물은 꺼지지를 안는다。洞里구경꾼은 모혀섯다。그중에는 물을 한바가지 떠들고섯는 사람도잇다 그러나 모두눈만 둥그러타。어이업는것이다。

……三分! 四分……

그예 물은 꺼젓다。그女子는 타다남은 속속곳으로 식벌엇케 다른 궁둥이를 겨우 가렷다그는 펄럭펄럭、구경꾼은 겹울비키다 싯검언 울타리새로 그는 사라젓다。

그리고 數旬이 지낫다。

오늘 나는 그女子를맛낫다。동에 어린아이를 업엇다。그는 나를 몰낫다。나는그를아랏다。그러나 지금껏 나는 그가 웨 불부른 옷을입고 거리로 뛰어나왓섯는지 모른다。짐작은할수잇다。그의 부어한간 방한간의 집이 이를 잘說明해주는 까닭이다。

曆 十月廿六日(土) 陰九月(庚丙戌)(小)廿九日 乙亥·火·女·除

● [illegible]九日(舊月十一日)

● [illegible]二十四日(舊月廿七日)

江都遊記……(二)

窄梁의民譚

鷺山 李殷相

永宗島 山언덕에
넘치는 가을나무
漁家ㅣ 멧채인고
사람은 안보이네
누고서 그림이라노
그림이래도 슬프고나。

지금 永宗島를 지나가며 나는 이노래를 부르면서 다른섬을 갈룰아 보이지 안을때까지

(永) 宗島의 寂寞한漁村만 바라보고 섯습니다。

사람은 이런 孤島風景을 볼적마다 或은 平和를 노래하고 或은 寂寞을 말하지마는 나는 그것을 그림이라하고 보아도가슴에이는 슬픈情을 늣길노릇수가 업습니다。더구나 그것은平和의書畵이아니오、괴로운 實生活의 한個標本임이 嚴然한 事實입니다。

永宗島를 지나 얼마쯤 가노라니 벌서 어디로 열렷는지 알수업도록 四方이 山으로 마혓습니다。어디로가도 언덕에만 대임 潮水의 形勢입니다。

그래도 배는 섬과섬、山과山사이로 용케도알고 빠저나갑니다。山은 갈길을 막으려 하고 물은 애써 더주려하야 尋常치 안혼

(造) 化의 재미나는 작난이 여기 한바탕 벌어저 잇습니다。두팔을 벌리고서 가는길을 막는듯 하면서도、옷으며 옷자랑을 잠깐거더 지나갈곳을 열어주는것이 바로 言笑가득한 어엿분女人의 짓갓치 생각도 됩니다。

自然은 간곳마다 재생긴그대로 神奇와재미를 거기마다 간직한것을 다시한번알겟습니다。

이가지 막힌듯 열린길로『손돌목』이란곳을 지나갑니다。여기는 島民들의 오래傳하는 民譚이 잇습니다。

文獻과口碑가 다 王代를 指摘하야 말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高麗朝의 어떤王代라고 합니다마는 저 高麗에는 高宗以後로 여러번 外敵의 侵入을 바닷거니와 어느王때에 그王이

(江) 華島로 避亂하야 오랍길에 이地點을 지나다가 四方이 山으로 길이맥히고 怒濤ㅣ 더욱洶洶해짐을보고『저사공놈이 나를 죽이려는것이란』하고서 그사공을 물에 던지매、사공은억울한 죽엄을 죽으며 그나마도 善心을 發揮하야 나는 원통하게 죽거니와 그바아지를 물에띄우고 그바아지 흘러가는곳만 따라가면 王은 살수가 잇슬것입니다』하더니 果然 바아지를 물에던지매 떠서 흐르는곳이 잇는지라 그뒤를 따라저어가 生命을 救援하고서야 無罪한사공을 죽인줄알고、거기祠堂을지어 祭를지나게 하엿는데 그사공의 이름이『손돌이』라 이곳을『손돌목』이라하고、그날이

(冬) 至스달 스무날이라、只今도 해마다 그날이면 暴風이일어나는데 그바람을 일러『손돌이바람』이라 傳하는것입니다。

毋論『이傳說이 實話인지 아닌지도 알길이 업거니와、더구나『손돌』이라함은『窄梁』이란 뜻이라 좁은목길이라는 말이매 그것이 果然 人名이엇지도信賴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傳說을 通하야 昔日 君王들의 沒人情한橫暴에對하야 怨望과함께 터저나왓던 民衆의 正義感의 一端을 엿볼수잇는것가타、이傳說에一層의敬意를가지고 귀를 기우리는것입니다。

또다시 생각컨댄、그가리 죽기를 무서워하던 帝王도마침내 가버린것이 우섭다면 우서운일입니다。

怨魂이 바람에틈어
이바다에 떠돌면서
해마다 그날이면
분하야 운다하네
그王도 간지오래니
이저버리고 말려무나。

손돌이 어진사공
제죽엄 恨함이랴
故國 情恨을
못풀어 우는게리
一年도 三百六十日
다불어도 낫것고나。

船夫는 일러『그날이면 바람부는게 異常하다』하건마는 아느냐 모르느냐——다른날 바람안부는게그도로 異常한줄을……

民謠研究

慶北民謠의 特異性 ⑤

金思燁

○、家庭不和에關한노래。

歌詞를通하야 본家庭不和의 原因은 舅姑對少婦, 小姑 同婿對少婦間의 軋轢이 大部分이다。突然한 姨親와 구박으로 少婦를奴隸視하고 虐待하려는 態態的心理는 그素因이 極端의家族主義의偏重에잇다。本妻와 妾사이의 不和로 本妻가 自殺하거나 廢家하여버린다는노래가 만은것은 早婚의餘弊며 이는 童謠에서도보인다。

例一、

싀집오든 사흘만에
가사구경 하라하고
아랫도장 나려가서
銀盞하나 만치다가
銀盞을 깨드렷네
고초가튼 싀아바씨
청붓를 걸안지며
아래왓 저미느라
너그집에 가그들랑
銀盞하나 물어다고
회초가튼 싀어머니
밤눈알콰 열더리며
아래왓는 저미너라
너그집에 가그들랑
노비전답 다파나마
銀盞하나 물어다고
앵도가튼 싀누씨는
청에동동 단이면서
아래왓는 저각씨야
너그집에 가거들랑
말매소매 다파나마
銀盞하나 물어내게
홍글홍글 맛동서는
이리가며 홍글홍글
저리가며 홍글홍글
홍글홍글 야단일세
듯는신부 할일업시
저그방에 드러가서
돗자리를 피여노코
좌면도듬 옵니피고
싀아버님 여안지요
싀어머님 여안지요
밧동시도 여안지요
시누씨도 여안저서
이내말을 드러보소
七八月 진장마에
동피가튼 當身아들
나와가치 옷을입혀
사인교 차리미고
허더둥내 다지내고
어마창안 지치달나
나의집을 차저와서
정반상을 물릴적에
入幅屛風 물려치고
닭한쌍을 마주노코
나무접시 되빌적에
銀盞하나 大端튼가
잘가시요 잘이시요
은소잡아 作別할제
銀盞하나 大端튼가
밤중새빌 돗이뜨고
지도새도 모를적에
온칸몸을 허렷스니
온칸몸을 채와주면
銀盞하나 물어줌세
싀아바씨 이말듯고
앗다마라 냄이알라
너그를을 내몰랏다
孝婦로다 孝婦로다
압東山 낫흘비여
뒷東山에 터를따가
삼칸빌땅 지어주마

(採地善山郡長川面)

新刊紹介

▲セルパン 十一月號 東京市麴町區三番町一 第一書房發行 振替東京六四二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獨學通信 第四十三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發行 振替京城八六九五番 定價五錢

▲佛敎時報 第三號 京城府[illegible]五ノ三七 佛敎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三六四三番 定價十錢

▲[illegible] 京城府[illegible] 發行 (非賣品)

「모스크바」의 珍奇한聾啞劇場

「모스크바 聾啞合同劇場」俳優로부터 觀客 道具 事務員에이르기까지 全部聾者와啞者뿐만으로된 珍奇한「聾啞劇場」이 이즈음「모스크바」에 생겨서 演劇씨ㅣ즌을압헤두고華麗한幕을열엇다「台詞」라고하는것은 이劇場에서는一切업고「제스튜어」와 表情만으로 하는 無言劇인데 觀衆도 亦是 無言의 拍手만하는 아주 靜肅한 演劇이다。脚本은 左翼物以外에「쉑스피어」의 悲劇과「실러」의「계흡의것도 드린다。俳優의數는 男女倂合해서 二十五名。觀覽席은 全部 五百名을 收容할수잇스나 開場以來 連日 超滿員의 盛況이엿다。

黑風 【156】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녀성해방회 10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도라오는 창순은 왕한의 처소를 차젓스나 왕한이가 아직 현명당본부로서 도라오지 아니하얏으므로 맛나지못하고 가변옵게 섭섭한정을 늣기면서 자기집을 향하야오다가 남북의 가로길이 합친는 곳에서 문득 왕한을 맛낫으니 왕한은 창순을 차저가는길이엇다 왕한을 차저갓다가 맛나지못하고 창연히 도라오는 길에 자기를 차저가는 그사람을 맛난 창순과 현명당본부로부터 도라오는길에 자기의처소로 가지아니하고 먼저 창순을 차저가다가 중로에서 자기를 차저갓다가 맛나지못하고 도라오는 그사람을 맛난 왕한은 피

연 얼마나 반가웁고 깃벗다는 것을 알수잇는것이엇다 그들은 젓빗가튼 저녁의 거리를 거러오면서 말과 말을 하는동안에 어느덧 창순의집에 이르럿다 적은집 등잔밋헤 서로대한 그들은 한병의 소흥주(紹興酒)로적은 피로(疲勞)를 진정하얏다 왕한의 강권에 못이이어 한잔찜 마신 창순의 얼골에 바야흐로 오르는 붉은 조수가 전등에비처서 자기가보아도 어엽븜을 의이지못할만한 그것이 왕한에게이바지하는것이라면 창순의 은근한정을 따라서 마시고 또마신 왕한의 취한기운은 헌앙(軒昂)하고 화창하야서 창순의 모든것을 너그럽고도 틈이업시 싸안어 주엇다

일기는 조금 소랭하얏다 문밧게는 첫겨울의 석긴눈이 보실보실 나리기 시작하얏다 바람을 따라서 엷은창을 친노하는 찬긔운이 사람으로 하야금 겨울밤이라는것을 깨닷게한다도 하얏것마는、취기(醉氣)라고할는지 정렬(情熱)이라고 할는지 따스한 가온대에 싸여잇는 그들은 조곰도 풍설의밤 이라는것을 깨닷지못하고 부드러운 말소리만이 그칠줄을 모르고 계속되다

창순은 녀성해방회 총회의 광경을 자세히 말하얏다 그리하야 청국의 녀성운동자의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아직 유치하고 다소 신지식을 가젓다는 녀자들은 너무 과격하야서 공론(空論)에 흐르고 실현성(實現性)이 업다는것을 말하고 그회에서 가결한 강령이 과도하다고 하나나보다 불가하야서 자기는 그와다른 의견을 진술한것을 말하는 동시에 다시 자기의 의견을 부처서 자세히말을하고 한편으로왕한의 동의를 구하는듯 하면서다시 비판을청하얏다

왕한은 창순의 리론에 대하야 절절히 찬성하얏다 그러나 창순이가 가젓다 할지라도 그회의 가결된 강령을 가티 할써서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될것을 말하얏다 단체라는것은 다수의견을 따라가는것이 원칙임으로 그회의 회원이된 이상 그회의 다수가결된 일이 다소 자기의견에 맛지안는다 할지라도 부득이 그결의에 복종하는 것이 오른일이라는것을 말하고 창순이가 미처 대답을 하기전에

『나는 가것습니다』

하고 왕한은 돌연히 이러선다

『아!웬일이서요?』

하는 창순은 놀나면서 이상한듯이 왕한의얼골을 살펴본다

『가야지오』

하는 왕한은 시침을떼고 문밧그로 나가랴한다

『아! 웨그러서요 돌연히 그러시니』

하는 창순은 왕한의압흐로급하게 이러서서 손으로 왕한의소매를 잡으랴고 하다가 실례라는듯이 다시 손을 멈춘다

『웬일이라니오 가야지 여기안젓슬수가 잇서요?』

하고 왕한은 얼골빗을 강잉하야 가다듬는다

적은새와가튼 창순의 마음은 이상한 왕한의 행동과 기색에 놀내어서 례의 명민한 두뇌로 그리유를 추칙하야보랴고 하얏스나도저히 그까닭을 발견할수가업서서 마음은 밧부고 가슴은발닥거렷다 일각 이각 말이 업는중에 찰나의 살풍경이어다

『제가 무슨 잘못한일이 잇서요? 말슴도 아니하시고 웨 그러서요 잘못한일이 잇더라도 용서하서요』

하는 창순의 표정은 갓흔 근심에 눌니는듯하얏다

登錄商標

龍角散

特長
龍角散은小量으로도效果顯著하고香味爽快하야病人、小兒、藥먹기실혀하는분도아조服用하기쉽고、곳담을除하고、기침을곳치게하는特徵이잇슴。

=龍角散主効=
○담으로恒常쿨특거리는人
○천식으로헐덕헐덕숨찬人
○기침이자저서잠못자는人
○流行感氣로된담기침하는人
○肺病으로恒常헷기침하는人
○담에惡臭나고피가석기는人
○音聲이갈리고咽喉가아픈人
○老人、病人의虛勞性으로되는기침
○百日咳又는돌림기침하는人

其他어떠한難症이라도一二週日繼續하야服用하면반듯이根治된다。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〇〇〇〇
▼全國藥店에잇슴▲
010—I

たんせき
ぜんそく
百日ぜき

龍角散의季節
秋節……………이되엿습니다
이에咽喉防禦第一이라고할季節感冒、痰咳一切에對한敏捷適確한治療의準備와實行을要합니다。龍角散은高貴藥만을配劑하얏슴으로담、기침、천식百日咳等의病症에자못卓效가잇는名藥입니다。

飲み易い
三共肝乳

三共의藥品 의定價와簡單한說明과를揭載한冊子「三共의藥品」이잇슴 必要하신분은此新聞名記入하야申込하시면贈呈한다

胃腸に 에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타—제
一般지아스타—제와全然그製法品質를달이한것이다。

다가지아스다—제는 三十餘年前 高峰讓吉博士가 發見하신 獨特한消化酵素로 爾來今日까지 進步하야 不動의聲價를 博得하고잇는것은 實로 下記와如한 比할수업는 特性을保有하고잇는 까닭이다
1。澱粉質은 勿論 蛋白質脂肪 其他 約二十種以上이되는 消化酵素를가젓슴…
2。澱粉糖化能率優秀 効力一定 永久不變……
3。胃腸內에서 잘消化力을發揮하야茶커—피—等의嗜好品에도効力이阻害안됨
消化不良의防止 消化不良에起因된胃腸病 胃腸機能의減退 其他 殊히 모—든 疾患時에 食物의 消化를돕고 食慾을 催進하야 榮養을增進케함다 目的에 無雙의 良劑라고 稱讚ㅅ고잇다。

(說明書請量)　粉末、錠劑の各種

三 SANKYO 共
東京·日本橋·本町
三共株式會社

天惠의工場地帶 仁川에 各系資閥續續進出
水質最適에着眼한日本紡織
大工場設置를計劃中

【仁川】사오년이래에 과연 인천은 놀랄만큼 공업도시화하야 시외는 염색공장신호리존(神戶屋)제면(製綿)공장등이 잡도하야 파연공업도시화하고잇다는데 뭇근방은 공업용수의 충분한것을보아 그외의 공장을 시설하라도 넉넉하다는 소식을듯고도 다시공장등이 집중되리라고 전하든바 근일은 인천이 일본방적(日本紡績)공장부설지로 예정되잇다는말이잇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그유지에 노력중이라한다

金津、建南間 等外道路開通

【江陵】강릉군옥계면(玉溪面)에서 수산물 산지로유명한 금진(金津)은 교통이 지극히 불편하야 매양면민들간의 물의가되어오든 터이엇는데 현면장최진태(崔鎭泰)씨부임후 이교통을비롯 정비코저 제일교통의 상대가 되는건남(建南)과에 도로를 신설키로 관민들의 동의를 어더공사에 착수하얏든바 드디어 부역으로 일천이백팔십명 현금으로 오백여원을 거출하여 지난삼십일 성대한 개통식을 거행하엿다한다

平壤教育界重樞 光成正義兩校創立記念
兩校다記念音樂會를準備 本報平壤支局後援

【平壤】평양교육계의 중진이되여잇는 광성고등보통학교(光成高普)와 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에서는 창립축하식과 근속교원표창식을 하는일방 다가티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축하음악회(祝賀音樂會)를 성대히 개최케되엿스니 일할과 장소는 다음과갓다

◇光成高普

광성고보에서는 십일월일일이 동교 창립사십일주년(創立四十一週年)긔렴일이므로 동교에서는 성대한축하식을 거행하는일방 동교졸업생으로 미주(米州)에서 다년간 성악사(聲樂士)의 학위까지 바다가지고 얼마전에 금의환향한 평양부내상수리(上需里)사십번지 방창덕(方昌德)씨를 초빙하여 그날밤 일곱시삼십분부터 축하음악회를 동교대강당에서 평성고보학생 긔독청년회주최와 본사 평양지국후원으로 개최하게 되엿다 방창덕씨의 리력은 전긔와갓거니와 씨의 귀국제일회음악회인만큼 발서부터 인긔는 비상히 집중되엿고 더욱이 반주(伴奏)는 사계의 명연자 매코스베리숭전교수(崇專敎授)가 담당키로되엿다

◇寫眞……方昌德氏

◇崇義女校

조선주일녀자교육긔관의 시초라고도볼수잇는 숭의녀학교에서는 십월삼십일일에 동교창립삼십이주년긔념일에 해당함으로 그날동교대강당에서 성대한 긔념식을 거행하는일방 동교의 공로자인 오문환(吳文煥)교유의 근속삼십주년표창식도 거행키로 되엿다 밤일곱시삼십분부터는 백선행긔념관에서 축하음악회를개최키로되여 목하 준비에 가장 밧부다

힌저고리에 곤색『세ー루』치마의 제복처녀 사백여명의총동원으로 연출되는 이음악회야말노 인긔의 초점에 달해잇서서 퍽도큰긔대를 가지게 한다

◇寫眞……吳文煥氏

僞造紙幣流布 殖銀支店서發見

【淸州】지난십구일 오전구시경에청주군 사주면 내덕리(淸州郡四州面內德里) 신모(申某)의처 김씨는 야채(野菜)를 팔고저청주고보교(淸州高普校)부근도로를 통행중 신문지로 싼것이 떠러저잇슴을 발견하고 즉시주서서 펴본즉 일원지폐 두장이 드러잇슴으로 그길로 청주식은지점출납계(淸州殖銀支店出納係)에가지고가서 잔돈으로 박구랴 할때 계원이 위조지폐임을 발견하고 즉시 청주경찰서에 게출하얏다는바 동서에서는 방금동지폐의 출처와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邑面稅滯納額 二萬七千餘圓!
差押當한것만五百二十一名 昨年度咸南道內에서

【咸興】작년도함남도내의 읍면세(邑面稅)체납상황을 조사하여보면 읍면세총조정인원 칠십만오백오십삼명에 조정총액 칠십일만륙백삼십구원삼십사전중 체납인원수는 이만일천삼백사십명에 이만칠천팔백팔십륙원의다수로서 그중재산차압(財産差押)을당한인원이 오백이십일명에 사백삼십칠원오십칠전이나 되다고한다

豫備檢束者 大部分을釋放

【井邑】전북정읍에서도 금번남조선 륙군대항연습계로 예비검속당한 청년이 이십여명에달하엿다하며 그중에는 본보정읍지국장 김용원(金容원)동총무겸긔자 류연기(柳然基)등 전국원이 일망타진격으로 모조리검속을 당했든바 지난 이십이일밤까지 대개석방하엿다한다

渡船警戒强化

【釜山】일본내지도항단속이 날이 갈수록 엄중하다함은 루보한바이인데 요지음 구주지방의 륙군대련습을 긔회로 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경남도 경찰부와 홍응하야 관부련락선과 부박련락선(釜博連絡船)에 이동경찰반원을 증원시켜 엄중한 경계를 하고잇고 도내 각경찰서의 도항수속도 에전보다 일층 엄격하야저서 일반 로동자의 도항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잇서서 요사이 매편에 부산항에서 도항자가 매편에 수십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도항제한은 (…) 계속하리라고한다

本報釜山支局主催 通度寺丹楓노리
十一月三日을卜하야

【釜山】요사이 틈에는 할금이물결지고 산에는 단풍이 붉게물드러서 호외산책 가장 조흔때인데 본보부산 지국 에서는 이조흔때를 리용 하야 일반독자에게 위안을 드리는 의미로 조선의명승지요 또 단풍으로서 유명한 경남 양산통도사(通度寺)단풍노리를 좌의 규정에의하야 오는 십일월삼일에한다는데 일반독자들은 이긔회에 만히 참가하야 주기를 바란다한다

一、會費 一人二圓 但往復車賃及午料其他
一、時日 十一月三日(日)
一、申込期日 十月三十一日限
一、出發 十一月三日午前八時
一、歸着 十一月三日午後五時

中國人夫婦싸홈에 朝鮮少女隱匿發覺
仁川署에서嚴調中

【仁川】중국인마수에 걸린 조선인소녀=지난 이십이일 오후 칠시경 시내신정(新町)길전(吉田)모공소(假名)에 숨어잇든 중국인 모녀를 상해코자 지나정(支那町)시칠번지 중국인 송증산(宋增山)(二四)이가 끌흠을고잡입하야 질오라고 할지음 전긔모녀의 발악으로 집안사람이알고 그즉시 살인미수혐의로 소판서에 체포취조중 자세한내용을 듯건대 전긔 모녀는 조선인 김씨(金氏)(五〇)가 얼마전중국인에게 출가하야 딸 왕씨(王氏)(七)를 나아 전긔송씨에게출가케하얏든바 전긔 중국인 송씨는 근일 의처증(疑妻症)을이르키여 매일가티 폭행을함으로맛참내 전긔모녀가 길전의 집에 숨어잇는것을 알고 전기와갓튼 소동을 이르키엿다 전기송증산을 체포하는동시 그모녀가 조선인이인만큼 그리면에 여하한 일이잇슬지몰라 가택수색을 한결과 그의집에는 련자(漣子)(一三)라는 말좃차 몰으는 박명한 조선소녀가 잇섯다 그러나 부모의 성명은 커냥 성좃차 모른다하며 범인좃차 전긔소녀를 세살쩍에 해주(海州)방면에서 데려왓다할뿐으로 그부모를차즐길이 업다한다

學年延長運動 南上面公普校

【居昌】지난십사일 경남거창군남상면민은 남상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된지 오래나 아직 사학년제이므로 불편이 막대하다 하야 학년 연장 긔성회를 조직하고 소요 경비를 거출하는동시에 당국에 진정키로 결정하고 산회하엿는데 그피선된 역원은 다음과갓다

會長 金禱洛 副會長 金永[illegible]

回甲宴費를節約 農校期成에寄附
甲山李鳳壽氏盛擧

【甲山】함남갑산군읍리봉수(李鳳壽)씨는 본시평남순천(順川)사람으로 삼십년전 금부란회사에서 갑산동광을 경영하든당시에 산에 이주하야 금일까지 사회사업에 공헌이만튼중 지난시월십팔일(음구월이십일일)자긔회갑을당하야 여러가지 경비를절약하야 풍산 삼수 갑산삼군련합농림학교긔성회(豐、三、甲三郡聯合農林學校期成會)에 금오백원을 긔부하얏다 이농림학교문제는당지사활문제인만큼 일반의칭송이 놉다한다

◇寫眞…李鳳壽氏

洋畫展覽盛況

【元山】본보원산지국주최 양화가 한상돈(韓相敦)군의 제이회 개인양화전람회(個人洋畵展)는 긔보한바와여히 지난십구일부터 사일간부내 중정공회당에서 개최하엿는데 관람인원수는 예상이외에 다수입장하여 사일간 총합계상천사백십륙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일우고 이십이일오후六시 폐회하엿다

東西藥院 製藥工場半燒

【平壤】평양부내 리향리(履鄕里)동서약원화학연구소(東西藥院化學研究所) 제약부제일공장에서 이십삼일오후두시삼십분경돌

家賃이大暴騰
新義州府內에

【新義州】신의주의 경제기가활긔를되고 각처로부터 모혀드는 사람이 계속증가함을따라 가옥사정이 도한겨우주하얏지만은 주택난으로 가임(家賃)이 비상히 올낫다 종래 두간주택에 팔원가량이든것이 십이원식으로 인상되고 거리가가는 한간에 십오원식이든것이 십칠원식으로 되얏다 이와갓치 빗싼집세로되세집을구하기가 극난하며 수입이 이와비례되지못하는 월급쟁이는 큰곤난을당하는등이라고한다

兩券番合同實現

【開城】개성기생풍긔취체와 동제적흥업을 철저히 하라면 먼저 량권번을 합동하여야 하겟다는 주지하에 개성서 신전(新田)서장이 지난팔십오일에 량권번대표자를 소환하야 합동책에 대하야 의견을 물어본바 량방의의견이 합동 합에는 일치하나투자문제에 다소의견이 일치되지못하야 얼여를두고 교섭중이든바 원만한 타협이 성립되어 지난 이십이일 개성서에 허가원을 제출 하얏다는데 명칭은 개명권번(開明券番)이라한다

市場基地로寄贈
時價萬圓의土地를 延安宋永奎氏特志

【延安】황해도 연안읍 봉남리구우시장(舊牛市場)의 소유자인 송영규(宋永奎)씨는 지난이십일에 구우시장터 오백평을 시장기지로(만원 현가—연안 사회에 기증 하엿 다는바 일반주민들은 협착한 시장긔지를 구우시장으로 이전하도록 면당국과 경찰당국에 진정을 하야 이전수속을 단행하기로하고 방금 활동중이며 서쪽 주민의 자진의연까지 잇섯는데 씨명과 금액은 아래와갓다고한다

宋善日百圓 文應昌 車炳錫 桂昭仁 千與善 劉鳳健 高應日 丁東輝各五十圓 徐昌龍 車述彦各三十圓

不合理한郵便網 早速改善絶叫

【咸興】함남오지대는 길혜선철도(吉惠線)등 제교통긔관이 착착완비되여가는데도불구하고 우편체송망(遞送網)은 의연구태를 벗지못하여 주민들의비난이 점점높하가고잇다 즉해산진방면은 길혜선철도가 함수선(咸水線)까지 연장되여 구월일일부터 봉두리(鳳頭里)까지 철도가개통되엿슴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은 의연북청(北靑)을경유하여 자동차편으로 수송하고잇슴으로 긔차편에의하면 봉두리와 혜산진(惠山鎭)간이 약 백리밧게안되는데 부청、혜산진간은 오백리이상이며 그우에자동차편임으로 우편물은 적어도긔차편보다 사오일식지연되여 도파손되는경우가 극히빈번하다 신갈파(新乫坡)혜산진간은 약일백오십리밧게안되는데 우편물은 멀리 풍산(豐山)을 경유함으로 그사이약오백여리와 원거리로 도라가는중 모든편의에잇서서 불리한점이 만흐며 주민들의 비난은 극도에 달하고잇서 당국에 하루이라도 빨리 개선하기를 절규하고잇다

無理한로질으로 行人을亂刺致死
馬山府新町서생긴慘事

【馬山】지난이십일밤열한시경구마산신정(新町)통에서 리유업시 무참히도 피상된 중년남자가 잇다 그는 마산부신정 박성화(朴性和)씨로 평소성질이온순한 만안이라 마산사회에 활동이 만흔분으로서 그날밤신정통(新町通)을 지내가는중 부랑자들이 주정을하고잇는중에 오동동(午東洞)리금례(李今禮)(二〇)가 무근한언쟁을 일으켜 큰식도를 가지고와서 근처에잇는 사람들에게 입대 위협을하야 쪼처보내고 전긔박(朴)에게 달려들어 한동안란투극을 연출한 남어지 하복부를 찔리여 창자까지 나온것을 병원에 다려가두시경에 그만세상을떠나고말엇다 도망한살인범 리금례는 마산경찰서의 비상활동으로 새벽세시경에 망천(望泉)불노관(不老館)에서 검거되어 엄중한 취조를 밧고 잇다고한다

德興公普校落成

【永興】영흥군덕흥면 공립보통학교는 금년삼월부터 기공되여이래 건축에 분망하든중 불원간에 준공하리라는바 오는삼십일에 락성축하식을 거행한다고한다

西鮮電氣背信에 南浦府民大憤慨
街路照燈架設公約不履行으로 期成會組織對策講究

【鎭南浦】원진남포전긔회사(元鎭南浦電氣會社)가 소화팔년도에 서선합동전긔회사(西鮮合同電氣會社)와 합동되면서 소위 지은(地恩)을 보답한다는 의미로일만오천원을드려 가로조명등(街路照明燈)을 설비한다는 언명을하고도 정식서면이 업다고 빙자하고 조명등설비를 부민들에게 부담식히고저 함으로 부민들은 크게 분개하여 전긔회사의 배신행위를 타매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중이라함은당시 본보에 상세히 보도한바어니와 당시 전긔회사측에서는량심의가책을 바덧슴인지 최초의 공약대로 가로조명등을 설비키로하여 곡물대회의인 구월중순까지 공사를 필하엿는데 최초의 공약하엿든 일만오천원의반분인 칠천오백륙십오원으로 백여등밧게 설비하지안헛다 이는 오만부민을 상대로 공약한 회사가 이런행위를감행함은 단연 용서할수 업는죄악인동시에 장래 진남포발전상 중대문제라고하여 각정리회(町里會)대표자들이 모히여 진남포가로조명등긔성회(鎭南浦街路照明燈期成會)를 조직하여 가지고최초의 공약을 리행할뿐아니라 가발전되는대로 조명등의 설비는전긔 회사가 설비하도록 교섭키로되엿다는데 만일 교섭이결렬되면 시민대회를열고 소등동맹(消燈同盟)까지 단행할 계획으로 전긔회사측 태도가 매우 주목된다고 하는데 긔성회측에서는 다음과가티말한다

期成會副會長 金兼根氏談

그문제에 대하여는 전긔회사측의 의견을 알수 업습니다 처음 공약대로 일만오천원을 드려 이백오십개를 설비한대도 회사측에는 아모손해가 업슬뿐아니라 도리혀 리롭게됩니다 전등료의 삼분의일은 부가 부담하고 삼분의일은 수익자(受益者)가 부담하고 남어지 삼분의일을 전긔회사가 부담하게되는데 그대신 전주세(電柱稅)가면제되니 아모손해가 업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도모지 할수 업다고 하다가 겨우 반부밧게 아니하여주니 오만부민압헤 공약이 잇슴과 부발전상 중대문제이니만치 최후까지 싸호려고 합니다 운운

電話、鐵道問題로 役員會를開催

【仁川】인천 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 이십오일 오후 네시부터 역원회를 개최하고 인수(仁水)철도문제와 경인간 전화회수증설、일본방적회사 유치등 인천발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토의하리라한다

地方人事

▲李光洙氏 張日龍君結婚式主禮次來新中이든바去二十二日上京
▲高橋房太郎氏(平壤府內務課長)就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平壤

第五回全平壤籠球聯盟戰

▲時日 十一月九日부터
▲場所 崇專體育館
▲申請期日 十一月五日正午까지

◇主催 崇實專門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異次頓의死 【24】

李光洙 作 金奎澤 畵

평양공주는 생죽하여지며,

『어마마께오서는 왜, 그 때에 세렵이를 죽이섯소? 몸을 홀딱 벗겨서 인두로 모도지지고, 아바마마께서 잡으신 손이라고 속몸을 잘르시고, 젓꼭지를 끈흐시고……』

하고 독한 말을 퍼붓는것을 왕후는 낫치 파라케 질리며,

『너, 그것이 어미보고 하는말이냐』

하고는 더 말도 나오지아니한다。

평양공주는 왕후가 말이 막힌것을 이용하야,

『그리고 어마마마께서는 내서방에 눈기는 연을 죽여버리지 못하면은 죽어서도 원혼이 되어 눈을 감지못한다고 안 하섯습니까。이몸은 서방을 빼앗기고도 가만히 잇스라고, 어마마마께서 어떠케 그런 말슴을 하십니까。어마마마께서 이몸 대산 이차돈과 달님의 가슴을 뭄어뜨더주시고 애를 꺼내어주시지는 못하실망정, 아아 어마마마께서는 넘어도 이몸에게 무정하시어요』

하고 분함을 못 이겨서 운다。

상감은 십년전 일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웟다。세렵이라는 것은 상감이 동해스가으로 순행하다가 다리고 온 어엿븐 여자엿다。상감이 그 여자를 사랑하시는것을 보고 왕후는 상감이 사냥가신 동안에 내전 압헤 잡아들여 홀딱 벗기고 옷몸에 인두를 달괴서 전신을 지지고 젓꼭지와 입섭과 팔목을 잘라서 죽엿다。이 일이 잇슨 뒤로 상감은 잠을 못 이루시고 입맛도 잇즈시고 이때문에 큰 병이 나시게 되엇든것이엿다。

왕후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가까수로 진정하며,

『한번 지은 죄는 업볍을 가도 그 갑을 밧기전에는 숨어지지아니한다더니 그 말이 올코나 십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가까수로 잇저버린 엣죄를 내 딸이 다시 끄러내어 나타낼 줄이야 뉘 알앗스리。악아 나는 언제나, 이 생에서나 저생에서나 세렵 죽인 갑을 밧고야말것이다。오늘도 네압헤서 밧는다마는 이 후에도 두고두고 죽은 뒤에도 두고두고, 안두시마 말과 가리 지옥이라는데 가서라도, 또는 세렵이가 나로되고 내가 세렵이가 되어 내가 세렵이를 지지던 그 인두로세렵이가 내 몸을 지지고, 내가 세렵이 젓꼭지와 입섭을 끈턴 가위로 세렵이가 내 젓꼭지와 입섭을 끈코야 이 죄가 숨어질것이다。아아 무서워, 아아 무서워!』

하고 왕후는 눈 압헤 세렵이 모양을 보는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뒷걸음을 치더니,

『그모양으로, 인제 이차돈과 달님의 원한을 뉘가 바들것이냐。아아, 제발 그원한이 내 딸에게 오지말고 이몸우에 나리소상이 몸이 지옥에를 가든지 아귀, 충생이되더라도 내 딸만은 내 딸만은。아아 이게 도모지 웬 일이냐。계집의 질투가 삼천대천세계를 태온다고 아두시마가그런다더니, 아아 무서운것은 계집의 질투。아마 세렵이의 원혼이 다 이러케 만드는게야。내가 그만큼 빌엇건마는, 신령하시다는부처님압헤까지 그처럼빌엇건마는 귀에 보복을 하고야 말라나? 귀에 보복을。그래도 그 보복을랑 제발 이몸에, 제발 이 몸에』

하고 긔색하야 업더진다。

『정신차리오』

하고 임금은 숨어진 왕후를 안아이르키면서,

『악아, 웨 그런 말슴을 하엿느냐。어마마마께서 그 말슴만 들으시면 이러케 괴로워하는것을。글세 웨 그 말슴을 하엿느냐。이 보아라, 거긔누구 잇느냐』

하고 임금은 왕후를 흔들며 시녀를 부르신다。시녀 둘이 달려온다。와서는 이 광경을 보고 눈이둥글하야 어쩔줄을 모른다。

『냉수를 떠여들이고 자리를펴고 편히 누으시게하렴으나』

하시고 임금은 조회시간이 되어서 정전으로 납시엇다。

평양공주는 정신업시 누으신 어마마마 겻에 안저서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을 들여다보앗다。한늘 아래서는 첫재로 가시는 왕후의 놉고 귀하신 몸이시지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것은 이 놉흔 자리에도 오는구나。자식에 대한 사랑, 남편에게 대한 질투, 원대로 안되는 모든 근심걱정 이 모든 것。

癩 병三개月만에낫는名약 무효면返金 釜山府草梁町 回春藥房

子宮病은女性의 健康을 害하고 姙娠을못하게한다
―누구던지읽으시라―

●子宮病의 原因과治療法

子宮病이라는것은 婦人生殖器의 子宮에關係되는疾病을 말하는것인데 그種類가 여러가지잇는中 第一 만흔것이 子宮內膜炎이라는것입니다。

이病은 月經時에不注意와産前産後의不攝生, 流産、難産、房事過度, 或은 男子의淋疾에感染되여 發生하는것인데 初期에는下腹이 압흐고 局部附近이빠치고 땡기며 大小便이잘通하지안코며 局部에서는白帶下물이 나오기도하다가 내종에는이것이 점점赤疾이되며白帶下로부터黃帶下、赤帶下、青帶下로變하며 惡臭가나게됩니다 이러케되면 자연히두통과현긔가나며 神經過敏、消化不良으로身體는점점衰弱하야 모든疾病이並發하게됩니다 또한子宮內膜炎의分泌物即帶下症의 害毒은 精虫을殺하게하므로 不姙症이되거나卵巢와 喇叭管에故障이生하야一生에子女를 出産치못하고 不幸에빠지게됩니다 이와가튼病이 잇는부인은 身體가 날로衰弱해저서 얼굴에도 화색이업고 手足이冷하고 月經이不順하게되니 날혹은 頭痛腰痛이생하고 남과가튼 한숨과눈물로 번민하며 지금까지平和든家庭도 子女를出産치못하는탓으로차차不和하게되여、甚하면 시부모와男便에게 소박까지맛는수가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하셔야 될것입니다

이와가튼 難治의子宮病을 治療하기에는 東洋婦人의體質에가장 適合하게理想的으로製造販賣하는 藥品「命之母」가잇습니다

「命之母」는조합하면 三十餘年의 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 西洋婦人 患者들께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 全治하시고 愛兒를 出産하신 實例가허다하옵는 幾人에好評과 本舖에到着한 謝狀과 愛兒의寫眞이 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 子宮病患者가잇스면 하로밧비「命之母」를試服하시고良效에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

九年間신고하던 子宮病이 全快되여姙娠햇소

平北碧潼郡碧北面……金錫麟氏夫人

나는月經不順과 대하증으로 結婚後九個年동안 신고를하던中千萬가지藥을 다써보앗스나 조곰도差度가업서서 비관을하던中新聞廣告를보고『命之母』가子宮病에有效하다는記事를보고最後로一次注文하야服用햇더니 얼골에화색이도코 원긔가나며 허리와배압품이나스며 대하증이 차차줄고월경이고르게 나오더니 二三삭후에姙娠하야 出産하고 不和하던家庭이 平和롭게되니『命之母』가子宮病에 絶對的有效함을 信用하고 世上에 宣傳하는中이올시다 (寫眞은本人)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命之母는 全國有名藥店에서도 販賣하지만 特히本舖로 注文하실때는 藥代金을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또는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 便利하오나 適合한藥을 指定못하시는때는 病勢를자세히 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 適當한藥을 付送합니다

帶封하야 五厘切手부처서 東京市京橋區入舟町・命之母本舖로 보내시는분 또는 葉書로 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 자세히 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 說明書를누구에게던지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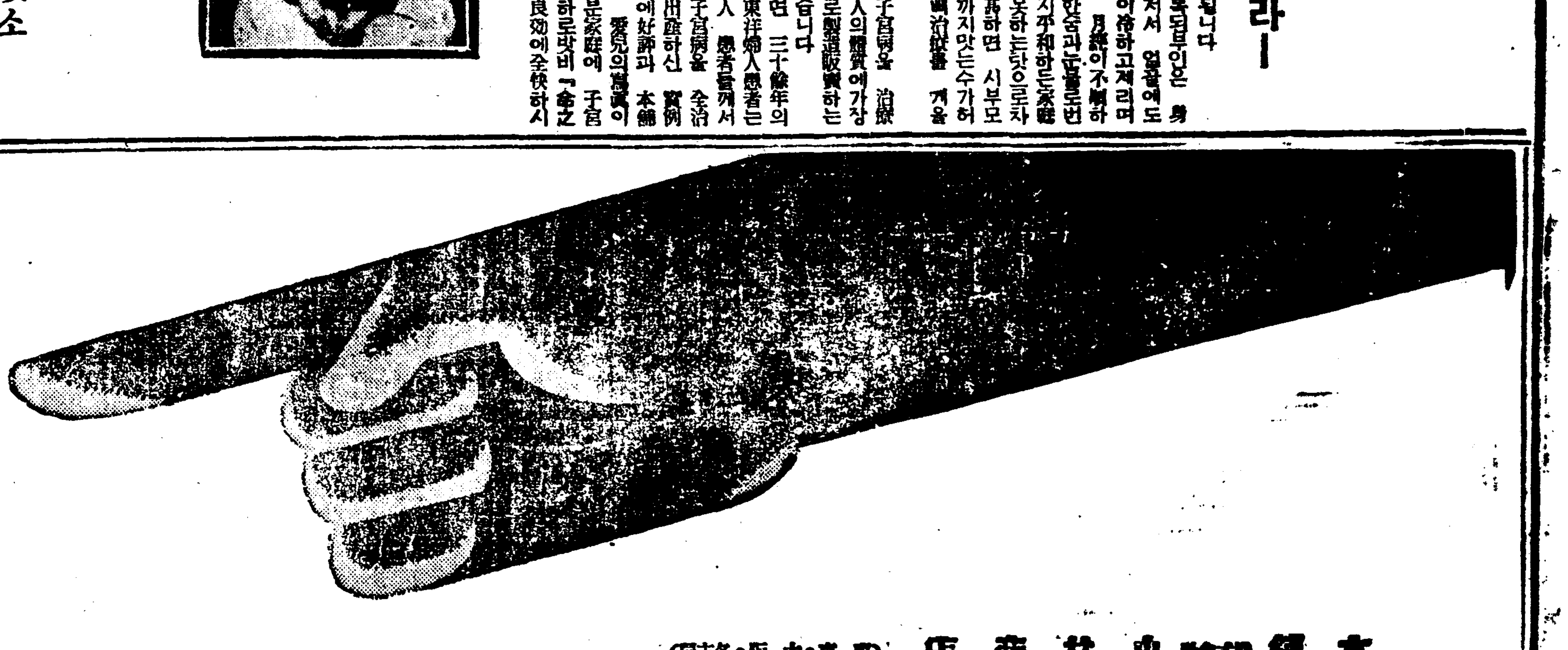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
子宮出血 赤帶下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經衰弱과 産前産後에 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壹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日分 參圓
三十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一六八七番

就寢前에도



ライオン齒磨
라이온

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春肥實需期로活況 金肥需要激增豫想

硫安만三十萬噸을突破? 鰮粕의需要도擡頭

朝鮮內의 肥料市場은 春肥需要期에 入하야 活況을 呈하고잇는바 米高에依한 農村의 更生은 肥料의 購買力을 顯著히 增進하야 金肥需要도 不拘하고 各種肥料에 亘하야 需要가 旺盛하야질 觀測이다 昨肥料年度의 硫安消費는

【大體】 二十六萬噸으로 보이는바 本肥料年度에잇서서는 적어도 硫安만도 需要는 三十萬噸으로 突破하리라고 豫想되며 또 前年度 比較的 不振으로 示한 過燐酸은 이미 春肥需要期에 入하얏는바 地方으로부터의 實需가 旺盛을 極하고 따라市勢는 目下 一圓四十錢으로 昨年와 只今을에 比하면 또 高價에도 不拘하고 如斯히 旺盛한 需要가잇슴은

【稀有】 의 現象이라한다 그리고 有機肥料인 豆粕은 前肥料年度에 잇서서는 百二十萬枚의 輸入이 잇서 前年度보다 約六十萬枚의 輸入減少를 示하얏스나 本肥料年度에잇서서는 百五十萬枚程度의 輸入이잇스리라고

【期待】 된다 勿論 來年의 肥料需給에 對하야서는 市勢關係에 만히 支配됨으로 豫想과 가튼 需要狀態를 示할는지 어떨는지는 不明하나 大體로 各種肥料를 通하야 需要增進의 一途를 거르리라고 觀測되고잇다 그리고 今年의 需肥新傾向으로서는 化學肥料의 供給不足을 念慮가

【濃厚】 한것과 價廉한 豆粕、鰮粕等 有機質肥料에도 買氣가 擡頭하야 化學肥料萬能時代로 進行하는 珍現象을 呈하고잇는것으로 그中에도 鰮粕의 需要擴張는 朝鮮農會의 肥料共同配合實施의 結果에 依하야 朝鮮産 等外鰮粕의 有利處理策으로 農漁村 共通經濟에 寄與하는바 크며 關係로各方面에서 자못 好感으로 歡迎되고잇다

賣殘米의賣却은 新米穀年度로넘겨

◇=買替實施를注目

【東京電話聯通】過般의 米穀統制委員會에서 決定된 政府所有古米二百萬石의 買替中 即時實施한 百萬石買替은 二十四日決定되어 六十七萬九千石賣却으로 約三十二萬石의 賣殘을 生하얏는데 이미 本米穀年度는 數日밧게 남지안엇슴으로 農林省은 繼續하야 賣却치안코 新年度에 넘기기로되엇다 新年度의 買替는 이미 政府米賣却濟百七十萬石에 對하야 買替를要하고 또 百三十萬石만큼 買替限度의 決定을 보고잇슴으로 어떤것을 먼저實施할지 자못注目되는 問題인데 新米出廻殺到에依하야 米價가弛하면 當然 賣却濟의分에 對한 買上을 實施할것으로 보이며 現在가튼 米價高가繼續되면 買替百三十萬石分도 實施하고 賣却과 買替를同時에 實行할것으로 보이는바何如間新年度初의 米價調節에는 이三百萬石買替를 農林省은 有効히 利用할것으로 觀測된다한다

京城金價 大幅引上

東京의 金價는 賣十一圓九十錢으로 昂騰되엇슴을따러 京城市中市勢도 二十五日은 賣十一圓七十錢、買十一圓五十五錢으로 올라서 賣七錢、買二錢의 引上이엇는바 東京市中價가 올른것은 金의 移動이잇는때문으로 賣買가 旺盛하다한다

土地改良 清算總會

【一回配當十圓決定】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의 第一回 清算臨時總會가 二十五日午前十時二十分부터 京城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엿는바

一、清算報告及 財産目錄承認의件

二、第一回清算配當金據置에 關한件

三、役員報勞金에 關한件을 附議 第一號議案은 異議업시 可決 第二號議案은 久保專務로부터 清算配當十圓을 提議하야

清算終了

朝鮮土地信託의 最終清算總會는 二十五日午後四時부터 開催되바 清算에 關한 最後의 報告가잇슬모양이라한다

第二回配當 四十錢가량

土地改良會社의第一回清算은 別項과가티 決定되바 同社에서는 남은資金即 什器六千四百圓 水利組合關係未收金五萬八千九十圓合計 六萬四千四百九十圓을 年內에 淸算하야 清算을終了할러로 第二回配當은四十錢가량이라고한다

銀禁輸說 香港市場動搖

【香港二十四日發聯合】今日當地銀行側에서 香港銀弗의 禁輸가잇스리라는 觀測이 잇서 市場混亂을 招來하얏스나 同日午後香港立法議會는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右風說에 對하야 그러한 事實은업는일을 公式으로否定하얏다

副業品卽賣會

第三回副業品展示卽賣會는 來月

新義州電氣增資 三千株를公募

新義州電氣(資本金八十五萬圓全額拂込)에서는 今番 事業의擴張에伴하야 資本金二百萬圓으로 增資하기로되어 增資百十五萬圓(二萬三千株)中 三千株를 公募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遞信局의 認可를 어덧는데 株式募集要項은 如左하다

一、第一回拂込 十二圓五十錢

一、募集單位 一人十株以上

一、募集期間 十一月九日부터 十一日까지

一、申込證據金 五圓

一、配當決定 十一月十六日

一、拂込期日 十二月二日

商銀은當分間 支店新設中止

商業銀行에對한 地方新興地로부터의 支店新設要望은 城津、吉州、惠山鎭、茂山、滿浦鎭、价川、三千浦、兼二浦等十數個所로 各地모다 相當히 開設이可能하나 同行으로서는 釜山商業銀行 買收合併으로 于先 中止하고當分 一切 合同、買收、新店創設等 中止하기로 決定하야 將來는惠山線、滿浦線의 兩線全通從社沿線 主要地에 進出하기로하야 이推移는注視되고잇다

東京、大阪等地 取引員 朝取取引員 申請無妨 總督府商工課의見解

山一證券의 京城進出은 各方面의注目을끄는터인데 同證券이朝取證券部 取引員이되려고하는境遇에 總督府가果然認可할는지안할는지가 注目된다 右에關하야商工課商信事務官은 如左히말한다

朝鮮取引所令의 制度로보아日本內地取引員의 支店設置 取引員申請은 何等의關係가업다 現在證券關係로서는 德泰公司의本支店關係도잇스며 또 大阪米取木村綬治氏의 博多取引所申請은 商工省에서 問題가되어잇스나 總督府에서는 그럿케 생각지안는다 따라서 山一證券이朝取取引員으로 申請하야도 資格詮衡에잇서서는아무일도업다

鐵鑛開發 促進要望 朝鮮商議提案

日本商工會議所總會는 十一月十九日부터 三日間 定時總會를開하는데 朝鮮商議에서는 左의提案을하게되엇다

日本製鐵原料의 自足을 期하기爲하야 朝鮮鐵鑛의 開發促進을要望함

九月中外國爲替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九月中의外國郵便爲替의 振出件數는 五百三十六件 그金額三萬五千二十三圓으로 拂渡는六千八百二件 十三萬六百三十三圓 差引九萬五千六百十圓이 外國에서朝鮮에流入한셈이라고

上海標金昂騰 對外爲替暴落

【上海二十四日發電通】當地의 通貨不安은 依然濃厚하야 銀價 外貨價가 더욱 旺盛을 除하야 二十五日의 標金市勢는 千八十七兩과 前日의 大引에 比하야 四十二兩가량 昂騰하야졋다 그러고 外國爲替는 對英 十四三十八分의 七 對米 三十二弗二十六分의五 八分의五 對日은 二圓四分가량 各其暴落되엇다 또 寄付後는 利喰關係로 反撥商狀을 呈하엿다

產金의技術指導

鑛山課 現地指導班

產金獎勵에따라 全朝鮮鑛業의九割을 占하는 朝鮮의金鑛은 그數가 約二千二百에達하는바 鑛業技術의 未熟으로因하야 金鑛도 中途에서抛棄되고 或은能率의增進도 日本內地에比하야 劣等한 現狀에鑑하야 總督府鑛山課에서는 此際 產金技術의 指導에 進出하기로되어 優秀한技術家十一名으로써 金鑛現地指導班을設하고 三班에分하야 一月初 各히 鑛山現地로 出動식히기로되엇다 同指導班은目下 稼行中의 約二千二百個所에 對하야 널리巡廻식히어 理論보다도 實際的 指導를 하야 產金技術의 進步와 能率的向上을 圖하는 것으로 明治時代에 日本이 外國으로부터 優秀한技術家七十餘名을 招聘하야 金山의 下級技術者에對하야 實地指導를하야 好成績을거든例도잇슴으로 이에따라 技術的으로는初期에잇는 朝鮮產金에 貢獻이잇스리라고 期待된다

京城商議改選 選擧立會人決定

京城商議 新議員選擧立會人은 左記四氏로 決定되엇다

宮林泰司 朴承稷 [illegible] 古城龜之助

朝鮮取引所 株、米모다臨休 十一月一日에

朝取는 十一月一日 熱田神宮遷宮祭當日 證券部 米豆部 모다臨時休業한다。

安取도臨休

【安東電話】安東取引所는 十一月一日 熱田神宮遷宮祭當日로 祝意를 表하야 臨時休業키로 決定하얏다

爲替貯金事務休止

來十一月一日 熱田神宮遷宮祭當日은 一般官廳 銀行等이 休業함으로 郵便局所의 郵便爲替 貯金其他의 現金受拂事務는 日曜 祭日에 準하야 休止하기로되엇다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illegible]

場一部의 建築工事(十三萬圓)를 開始하얏는바 今後도 部分的으로 工場建築을 進行할 方針이라한다

○朝鮮石油決算=朝鮮石油에서는 今月末에 第一期決算을 마치고 來月下旬 第一回定時總會를 開催하는바 配當은 事業開始前임으로 無配로 內定하엿다한다

○安取理事長大津氏決定=【安東電話通】安取後任理事長은 前地方委員議長이든 大津鮫氏에게 交涉中이든바 高橋理事長도 이를 承諾하얏슴으로 同氏의 就任으로보게되엇다 그리고 常務는 前朝銀安東支店長坂井國氏로 決定되엇슴으로 紛糾를 거듭하든 東取問題도 이로 一段落을 告하게되엿다

○送電會社設備檢查完了=朝鮮送電會社에서는 今月中旬까지로 送電設備를 完了하고 遞信局의 檢查를 맛는바二十日에 檢查도 完了되야 十一月中旬長津江水電의 正式發電과 同時에 同水電으로부터 受電을 開始하야 西朝鮮電氣에 送電하기로되엇다한다

進之잇다는데 先年十二圓五十錢拂込後收當時 百三十圓前場에서 百四十圓前後로 昂騰되어잇다가 其後還元하야 拂込이 解消되어잇스나 百五十圓目標로 하는모양이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枚 ◆大同證業 [illegible] ◆川崎汽船 [illegible] ◆鐘水產新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尼崎 [illegible] ◆宇治電力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大同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電通】當限落이오 無材料의市場은 閑散하야 市勢도保合이엇다

期米 小幅圈內 保合

前場小弛

昨後場 阪地三十圓十九錢止와共히 二十七圓九十九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十九錢인 昨止同様의報를 據하고 二十七圓九十錢인 阪地二節二十一錢까지 返始한後 九十九錢까지 跳返하더니 阪地十一錢으로 反落止場함을伴하야 九十三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頑強

後場은 二十七圓九十五錢에 二丁高로始場後 二節九十九錢으로 五節九十五錢에 頑強이고 別欄가티止場하다

株式 商況 【廿五日】 伸悩타가 小落

前場揉合

今前場은 高價揉合이다가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六十一圓九十錢 朝新三十三圓十錢에各大引되고 朝取七十二圓丁 鐘新百四十二圓九十錢 大新九十七圓二十錢이엇다。

◆東新 [illegible] ◆朝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後場小落

後場은 東新百六十二圓丁 日産 八十圓三十錢 朝新 三十三圓十錢에 保合狀後 低迷裡 結局 小落大引

前途洋洋타고 強氣는押目買主張

戰爭은 別問題로삼고라도 株界의根底는 强固한것으로서 어디까지던지 貿易과 膨大豫算의繼續을背景으로 前途는 洋洋한것이라고보는것이 올흔것가튼데 今後의 問題는豫算編成이 어떠케될가? 가궁키는하나 雜株投資의循環高를促하야 東新은 亦是人氣의中樞가되어 押目買一點이得當할것이라는 強氣論이이다

日産處分一巡?

日産이八十圓關門이깨여저 七十七圓臺에까지 떠러저든것은 日産系의 減配念慮가잇는데다가 某生系商의 大口側이 生糸市勢觀方에廻하야 最近크損을 當하얏슴으로 그損失을埋할 資金을 調達키爲하야 所有日産 系諸株를 處分한때문이라한다。그런데 다시 八十圓關門을 恢復한것을보면 이處分이 一巡된모양이다 八十圓以下는 팔수업고 思目買가 得宜하리라는 말이잇다。

▲鐘新의目標=鐘新은今前場當地百四十二圓九十錢에 暴騰되바 東京서 山一證券이 買

人絹染工聯進出

朝鮮側은 競爭手段 輕視나 壓迫에對抗할態度

日本內地人絹染工聯에서는 旣報한바와가티 朝鮮出荷에 對하야 運賃補助를 交付하야 積極的으로 朝鮮에 進出을 할모양인데 이에對하야 朝鮮側 染色業者는 朝鮮은 日本內地와달나 人絹染色은 勞銀低廉 비롯하야 諸般의 有利點이잇스며 統制費用의 負擔이 업는點으로도 確當 三割가량의 採算이 有利한關係로 日本內地側이 多少의 保護政策을써서 對抗을 할지라도 介意할必要가 업슬것이며 또補助도 永續性의것이 아니고 永續的으로 對抗하는때는 朝鮮은 도리어 日本內地側과 競爭하야 壓迫을 줄수잇는것으로 現在 朝鮮內染者는 朝鮮滿洲需要에 對應할뿐이다

右와가티 日本內地의 競爭手段을 輕視하야 日本內地가 壓迫하려할때는 對抗할態度를 보인다

東拓米資貸出 五百萬圓內外

今年의 米穀資金需要는 米價高로因하야 米의出廻가 빠른것과 利用者의 認識이 깁퍼진關係等으로 一般的으로 例年보다 빨넛는데 東拓京城支店도 前年에 比하야 一個月빨넛는데 東拓當局은 留意貸出할 方針으로 前年의低利資金 三百五十萬圓 自己資金 七十萬圓 合計 四百廿萬圓에 比하야 今年은 米價가 놉흔事情도잇스나 約二割增의 低利 自己合하야 五百萬圓가량 豫想이라한다

大連鈔票依然續落

【大連二十四日發電通】二十四日午後의 大連鈔票는 依然落調가 不休하야 上海의 通貨不安의影響을바더 總投로되어 百十二圓八十錢으로 大引 今朝의寄付에 比하야 一擧二圓九十錢가량奔落하얏다 그리고 前日午後의引值에比하면 實로四圓三十錢가량의 大幅低落을示하야 百十圓의 關門割도 必至라고보인다

經濟界消息

○金剛山電鐵一分減配=金剛山電鐵에서는 私鐵補助金의 減額改定에 依하야 減配를 하지 안흘수업게되엇슴으로 드듸어 當期決算부터 一分減配의 年九分配로 곳치기로되엇다

○北鮮製紙工場建築着工 北鮮製紙에서는 過般 吉州工場의地均工事를 大林組에 請負케하야 目下 着工中인데 更히工

冷害對策協議事項

一、耐冷性優良品種의 普及에關한件 現在栽培中의 作物로 農事試驗場北朝鮮支場 及各道에서比較的優良하다고 認하는 品種을 于先普及하기로하고 이具體的方法에 對하야 協議하려함

二、耐冷性作物의 栽培獎勵에關한件 北朝鮮支場의 研究結果 有望하다고 認하는 裸麥、燕麥等과 大麥等 耐冷性作物의 選定頒布 此等適作物의 普及을速히하기爲하야 取할가장 適當한 施設에對하야 協議하려함

三、耕種法改善에關한件 肥料의增施 其他耕種法改善에 關한指導를 徹底케하기 爲한適切한具體的方策에 對하야協議하려함

四、有畜農業의 獎勵에 關한件 西北朝鮮地方은 林野가 만코 比較的 野草가 豐富한것과 또冬期間의 餘剩勞力을 利用식히기爲하야 今後 一層 有畜農業을 獎勵하기로하고 地方의 實情에 適하야 가장 有効適切라고 認하는 實施方法에對하야 協議하려함

五、土地改良施行에 關한件 (가) 冷害地의 耕地로 排水가 不良한것의 所在 及 其狀況을 調査하야 此等土地에對하야 排水改良施設을 實施하려는바 이 協議를 하려함 (나) 民有火田의 整理에對하야서는 別項에서 協議할것이나 現狀대로 이를 放置하면 表土가 流出하야 해가지남을 따라 瘠薄의 度를 加하야 마츰내는 冷害의 因이되이 不少하다 그럼으로이對策에對하야 協議하려함

六、生産物의 處理에 關한件 生産物의 加工、檢査、販賣等에 必要한 設備와 이實施를助成하야 生産의 獎勵와、販賣의 統制를 恒常 併進식히기로하고 이 有効適切한 實施方法에對하야 協議하려함

七、民有火田의 整理에 關한件 民有火田中에는 標高 及 傾斜의 關係上 農耕에 不適하다 또 多年의 耕作으로 表土가 流失하야 瘠薄하얏슬뿐아니라 其下方 耕地荒廢의因이 되이 不少하다 此等의火田은 特히 冷害激甚함으로 으整理方法에對하야 協議하려함

八、樹林地帶의 造成에 關한件 同地方은 無統制한 開墾結果 이미 燃料에 缺乏을 招來하고 또 肥料 及 飼料의 資源에 窮한 地方이잇서 冷害의 防止 及 沃土의 保存上 가장 必要한 防風施設을 缺하야 農耕의 安全을 期할수업는 現狀에 잇슴으로 此等의 對策으로 樹林地帶를 設置할 必要가잇스나 이 方法에對하야 協議하려함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政府米拂下와 强弱의兩面觀

注目의 焦點이든 政府古米百萬石拂下豫定에 對하야 六十七萬九千六百五十一石의 拂下를 決定하엿다。一般의 豫測보다는 比較的成績이 佳良하다고 할수잇스나 그러나 三十二萬石의 賣殘米를 두고서 良好하다고 할수는업다。此 賣殘米는 第二回 米作豫想을 發表한後에 賣却하기로 內定되모양인데 今回 六十七萬九千餘石拂下에 對하야 强軟兩派의 觀測이 區區不一하다。强氣側의 說에 依하면 一은 政府의 拂下 價格이 놉흠에도 不拘하고 六十七萬九千餘石이나 拂下되엇음은 民間의 在米가 稀薄할뿐아니라 今後需給의 不安을 念慮하야 申請이 多함을 알수잇스며 又는今回의 拂下米가 大概 思惑側의 手中에 占領되고 말엇음으로 그다지 威脅을 受할餘地가 업슬것을 豫期할수가 잇다하며 軟派는 此에對하야 拂下成績이 良好하엿음은 不良하엿음은 正히新穀이 出廻하는 此際에 政府의살의民間으로 나온것만큼 그만큼 威脅이 업지아니하야 買賣成을하는 光景이다 實로 一昨日의阪地三十圓叢割은 拂下米의壓迫을豫想하는 山種一派가 實叩하엿든것이오 昨日의 三十圓十九錢까지 突返하엿음은 拂下의 成績이 良好함을 意味한것이다。그런데 拂下를 發表한 今後가 果如何할지 注目을 要할바이다。

市場六感

株 和協모양에 依하야 戰爭氣分消散임은 結局 市勢를堅實케하는것▲너나할것업시 東新百五十一圓가량으로 떠러지기를 기대리니까 市勢도 도리어 떠러지지안코 앙버티고 잇는모양 ▲强氣는 百五十一圓이나오기만하면 사자고별느고 弱氣는 반드시 그만콤떠러지리라고보는데 市勢는 結局 큰低落이업시 戰爭失望市勢一巡으로 大幅揉合이다가 豫算編成이되면 그것을 動機로 騰勢되기十常八九 ▲어떤친구 自信잇게말하기를 年內東新二百圓은 잇슬것이라고壯談 二百圓은 맛치몰나도 百八十圓은 잇슬것이라는 말도잇는바 果如何?▲朝新도 業績良好增配로 一段高無疑라는 强氣論에 買意를表하자——

米 政府米拂下는 豫定數量百萬石에 對하야 六十七萬九千餘石으로 決定되엿다▲硬派는 그成績이 良好하다하야 買方針을 固執하나 그러나 軟派는 新米出盛期의 拂下인만큼 찰아리 弱材視할수잇다고 主張▲何如間 市勢는 벌서 拂下成績의 良好를 意味한 行動을 旣히 一巡하고서 更히伸悩▲그런데 賣殘米 三十二萬石은 第二回米作豫想을 發表한後에 賣却하기로 內定된모양▲그러나 第二回 豫想이 減收되어 買氣를 助長하는때는 三十二萬石各의 拂下를하여자 그다지 影響은 업슬듯▲正租의 檢査가 嚴格하기때문에 產地出廻가 殊然히 稀少하다고 都市米穀業者는 然觀▲結局 都市로 나올것은事實이지마는 初秋의出廻가 如是 稀少하고서는 低落할理가 萬無▲그러나 細農家에서는 金融의 逼迫으로 與急하지안을수업슬터이니 一時的 瓦落은잇고야 말것을 豫期、今後出廻의 狀況이果如何?

米出廻如何와 低落程度一考

昨日 朝鮮各地의 正米市勢는新米出廻의 氣分이 濃厚하과 相俟하야 各五十丁의 反落을告하엿다 果然 出廻의 狀況은 何如할것인가를 一考하면 本米穀年度부터는 正租의 檢査가嚴格함에 딸아 出廻의支障이 만흘것이오 又는來十一月下旬부터는 政府米買上이 旣히 發表된것을 豫想하고 그時期에까지 待機的으로 나아갈것이라 豫測할수잇스며 그一方으로는 來十一月부터 十二月까지는 年例의 米穀資金融通時期이며 大小農家가 不拘하고 換金的賣物이 旺盛할것임으로 반드시 그만한 實需壓迫을 免치못할것도 事實이다。그러나 現下 當地二十七圓九十錢臺의 市勢는 今後 正租의 時勢 七、八圓臺目標한 先限的低落으로 볼수잇슴으로 低落한다할지라도 그다지 深入할餘地가 업다。그러나 市勢란 其時其時의 現象으로 正租의反落을 標準하면 更히 實叩할餘地를 말아 어느程度까지 反落할지도 亦未知의일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各地正米

仁川不變 定期少强과 賣物薄으로 氣配不變이나마 好天候로 賣物增加豫想으로 買控하고 [illegible] ⑬三等二十八圓 四等二十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五錢

釜山一息 市場實物 三十臥餘 商談繼續하야 精米側의 買氣旺盛으로 實物이잘 消化되고 朝米二、五五八臥의 商談이 成立되어 市況이 活況이나마 氣配不變으로 ⑬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六錢

大邱保合 出廻에 向함으로 突込買警戒 人氣濃厚로 僅히 定期側의 準備買가 散見되뿐이고 保合인 ⑬三等二十八圓八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昂高 消費의 底意堅調로 產地도無碍히 갈흘 崩치안코 內地常用側의 入注와 賣物減退로氣配十五錢高인 ⑬三等二十九圓丁 五等二十八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同調 頭上 數大으로 產地賣物이 顯著히 減하고 日本內地拂下 不成績으로 移出側의 買氣潛在하야 氣配不變이나마 强含商狀을 示한 丸ホ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京城不變 雙方形勢傍觀으로 氣乘薄、場面至極閑散이엇다 丸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金白銀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二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壹五四番 應需販賣引換代金 地方註文 送料先金要

金銀 白金 分析 賣買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에應 (要送料先金) 金城商會 京城鍾路二丁目(十二番地) 電話光化門一九三七番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五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스카크期交 [illegible] ◆鑛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綿搾粕沖價 [illegible]

株式 (廿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取組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